

④456 | 2018. 3. |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000-003964-01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 박대식 · 안석 · 윤순덕 · 남기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DA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마상진 · 박대식 · 안석 · 윤순덕 · 남기천

연구 담당

마상진 |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 선임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 석 | 부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순덕 | 연구관 | 국립농업과학원

남기천 | 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456

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3.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삼신인쇄

ISBN | 978-89-480-5197-1 93520

- 본 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명: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실태 및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연구, 세부 과제번호: 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마을 사례조사는 귀농·귀촌이 농촌 마을에 주는 의미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임. 2015년 선정된 10개 사례 마을의 마을 관계자(이장 등)에게 연락을 취해, 정착해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마을당 2~3명 추천받았음.
- 정착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마을별 3차 방문 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귀농·귀촌 마을의 기본실태, 정착 과정(귀농과정, 귀농 교육 여부), 경제활동(마을개발 사업, 6차 산업,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지역사회활동(사회적 자본, 귀농·귀촌인의 역할, 원주민과 귀농자의 갈등 사례, 귀농자 유입으로 인한 변화), 삶의 질 실태(복지, 교육(농촌학교), 문화·여가, 환경·안전) 등이었음.
- 귀농·귀촌의 이유를 유형화해보면 전원생활, 영농활동, 생태적 가치 추구 등이 있었음. 전원생활은 퇴직 후 여생을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보내기 위함이었고, 영농활동은 농업에 뜻이 있어 종사하는 경우였음. 생태적 가치 추구의 경우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려는 경우였음.
-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양상을 보면 농업에 전념하는 경우, 농업 이외 다른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소득 등의 소득원이 있어 여유 있는 여생을 즐기는 경우 등이 있었음. 여유가 있는 귀촌인들이 최소한의 농업인 요건을 갖춰 각종 혜택을 보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음.
-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타남. 원주민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학교의 경우 귀농·귀촌인 자녀 비율이 원주민 자녀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겨남.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

의 학교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 자녀들의 텃세에 귀농·귀촌인 자녀들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라짐.

- 귀농·귀촌인의 정착에는 마을에 흡수되려는 귀농·귀촌인의 노력과 함께 마을의 귀농·귀촌인 수용 분위기와 준비가 중요했음. 일부 마을에서는 원주민과 귀농인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경우, 서로 간에 기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집성촌의 경우 원주민들 눈치에 귀농인들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원주민의 동의로 만들어진 마을 규약이 잘 짜여져 있어 귀농인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나 마을사업, 마을행사 시에 귀농·귀촌인과 주민 간의 잡음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 귀농·귀촌인뿐 아니라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 대책이 절실함. 영유아 보육시설,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부족 등과 더불어 농촌지역 특성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였음.

차례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결과

| | |
|-----------------------------------|----|
| 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새등지마을) | 3 |
| 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2리(봉황마을) | 8 |
| 3.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2리 | 15 |
| 4.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산너울마을) | 22 |
| 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비나리마을) | 27 |
| 6.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 35 |
|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1리(홍현마을) | 44 |
| 8.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봉곡마을) | 52 |
| 9.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현천리(현천마을) | 59 |
| 10.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 67 |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 | |
|--------------|----|
| 1. 요약 | 74 |
| 2. 시사점 | 81 |

제 1 장

조 사 개 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정착 실태와 그들이 농촌에 주는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귀농·귀촌인 장기추적조사 패널(1,039명)을 구축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마을 사례조사는 패널 추적조사의 양적 분석 방법에 치우쳐져 있는 설문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로, 귀농·귀촌이 농촌 마을에 주는 의미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함.
- 2015년 선정된 10개 사례 마을의 이장 등 마을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소개받았으며, 마을당 2~3명을 추천 받았음. 정착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마을별 3차 방문 조사를 실시함<그림 1-1>.
- 이번 조사에서는 마을 기본실태, 정착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함.

- 정착과정: 귀농과정, 귀농 교육 여부
- 경제활동: 마을개발 사업 현황, 6차 산업화 활동 현황,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 지역사회활동: 사회적 자본 현황, 귀농·귀촌자의 지역에서의 역할, 원주민과 귀농자의 갈등 사례, 귀농자 유입으로 인한 변화
- 삶의 질 실태: 복지, 교육(농촌학교), 문화·여가, 환경·안전

〈그림 1-1〉 전국 10개 사례 마을



제 2 장

조사 결과

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새둥지마을)

1.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에 총 67가구가 살고 있고 이 중 귀농인은 12가구임. 귀농·귀촌한 12가구 외에도 서울 등에 거주하며 마을에 집을 지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음.
- 귀농·귀촌자들 중 귀향인은 없고 모두 연고 없이 들어왔으며, 12가구 모두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고 있음. 마을이 유씨와 최씨 집성촌이었으나 대부분 빠져 나갔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구는 9가구임.

1.2. 정착과정

- 귀농인 부부 A는 2011년 마을에 이사했음. 2000년대 초반, 마을에 땅을 사 놓고 서울에서 오가다 2011년 정착했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마을에 들어왔음.

“귀농 당시 따로 교육을 받고 들어온 것은 아니며, 2014년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대학(로하스 대학)을 나왔고, 2015년 강소농 교육을 받았다. 2016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e-비즈니스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컴퓨터 교육으로 농산물 판매 등이었다. 교육을 받으며 기존 농업인, 인근 마을의 귀농인과 교류가 생겨 거주하는 마을 설정 등을 알 수 있었다.”

1.3. 경제활동

- 귀농인 부부 A의 귀농 초기(1~2년간), 이장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함.

“마을에 들어온 해에 공동텃밭을 빌려줘서 약 300평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후 참여 귀농인과 텃밭이 점차 늘어났고 농지는 약 2,500평까지 늘었다. 관리가 안 된 땅으로 돌과 갈대가 많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며, 너무 힘들어 함께하던 귀농 가구들은 못하겠다고 나가고 최종적으로 2가구가 마무리했다. 감자와 들깨 등을 심었으나 땅이 좋지 않아 수확은 많지 않았다. 올해는 이장이 빌려준 땅 3,000평에 들깨와 울무 농사를 지었다.”

- 정착기를 지나 귀농인 부부 A가 마을 운영에 주도력을 발휘한 후 마을 리더들과 갈등이 시작됨.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마을 귀농회에서 인력을 공급(잔디깎기 등)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 귀농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B 귀농인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골프장과 계약할 때 마을 이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B 귀농인이 주도했다며 이장과 마찰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B 귀농인은 귀농회도 그만두게 되었다.

- 마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수익 배분, 마을회관 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 마을 주민과 귀농인 간의 갈등이 있음.

“초기엔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마을 주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처음 시작은 마을 주민이 다 같이 마을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목장, 양계 등을 하는 주민들은 바빠서, 혼자 사는 가구 등은 안 한다고 해서 결국 9가구가 남았고, 이들만이 마을사업 운영에 참여했다. 귀농인들이 운영 수익배분 및 마을회관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올해 초 마을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넣었다고 한다. 초기엔 수익의 10%를 마을에 환원하기로 했으나, 작년까진 전혀 환원이 안 됐다. 그리고 마을사업에서 식사 등을 준비할 때 야채 등이 필요한데 마을에서 다 같이 조달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지만 부녀회장 등 일부 원주민만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지역사회활동

- 귀농인 부부 A의 주도로 마을 귀농회를 하고 있음.

“초기에는 9가구가 시작했지만, 골프장 문제로 이장과 갈등이 있던 B 귀농인 가구가 나가면서 다른 가구도 같이 나가고, 올해 새로 들어온 한 가구가 추가되어 현재 8가구이다. B 귀농인은 따로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재 마을에 4가구가 들어오려고 집을 짓고 있어 귀농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회 중 가장 젊은 사람은 50대이고 귀농회 활동으로는 정기적 모임과 함께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돕고 있다. 군에 등록은 하지 않았고 현재는 마을 내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정도이다. 군 단위 귀농모임이 있으나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다.”

- 마을의 노인회와 부녀회 또한 노인정 사용, 연임 등 갈등이 있음.

“현재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다. 총무를 맡기 전 노인회는 노인정 문을 열지 않고, 지원금 사용이 불명확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노인회에서 운영 관련 외부지원을 수백만 원 받지만 쓰는 데가 없었다. 어쩌다 한 번 마을 모임이 있을 때 밥을 사는 정도였다. 또한 노인회의 회장과 총무가 계속 연임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노인회 문제에 대한 주민 서명을 받아 군의 노인복지지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에서 중재해 기존 사람은 나가고 현재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다. 이후 일주일 내내 노인정을 개방해 마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부녀회장이 현재 15년째 하고 있다. 다른 마을은 대개 임기를 3년으로 연임해도 최대 6년까지밖에 못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부녀회장이 계속 연임하고 있다.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운동회 때 음식 만들고, 마을 풀 깎을 때 동원되는 게 다이다. 마을 기득권층인 이장 사모와 현 부녀회장은 제가 부녀회를 맡을까 계속 견제하고 있고, 현재 마을 기득권층에서 누가 부녀회장을 할지를 대충 정해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올해에는 비밀투표로 공정하게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마을의 임원 선출 방식이 기득권층에서 정하고 마을 총회 때 누가 하기로 했다 발표하고 끝이었다. 이미 내정자가 체육대회 때 면장에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 귀농인 부부 A는 마을 운영 시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마을이 특정 성씨 집성촌으로 친인척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마을 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서로 덮어준다. 또한 원주민과 귀농인 모두 혼자 지내는 고령자들이 많고, 그들은 시끄러운 것이 싫다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 마을 운영의 문제를 귀농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니 기득권층들은 귀농인들을 견제하기도 한다.”

“한 예로, 마을에 발전기금이 약 9천만 원 들어왔는데 사용처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또한 골프장을 건설하며 발전기금이 약 1억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인근 학곡리의 경우 마을 주민들 모두가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을에서는 땅을 500평을 샀는데,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개발원원장 등 4명의 명의로 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농협대의원 선출 시 마을에 공지나 상의 없이 후보를 등록하고 투표 전날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선자가 마을 이장이었다. 군에서 지원하는 컨테이너(창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닌 기존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 등 귀농 귀촌인은 소외되고 있다. 귀농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 이러한 마을 갈등에 대해 지자체에 공식적 문제 제기 통로는 있지만, 주민들 자체 해결을 지켜보는 입장임.

1.5. 삶의 질 실태

- 보건소는 마을 내에 없어 도곡, 백학, 적성, 연천 등에서 보건수요를 해결하고 있음. 수도권에 연접해 있는 연천군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버스요금이 무료여서 보건소와 병원 이용에 불편은 없음.
- 마을의 귀농·귀촌자 대부분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자녀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마을에 10대 학생은 없고 대학생만 1명 있음.

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봉황마을)

2.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 전체 가구는 81가구이며 이 중 귀농·귀촌 가구는 72가구임(실 거주 가구는 60여 가구). 이 중 8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음(전업농 6가구, 부업농 2가구).
- 매년 4~5가구가 새로 들어오고 있고 올해도 6가구가 들어오려고 집을 짓고 있음. 대부분이 전원생활을 즐기러 온 여유 있는 귀촌자들임. 예전에는 마을에 원주민이 약 200여 가구가 살았지만 현재는 9가구밖에 남지 않음.

2.2. 정착과정

- 귀촌인 A는 올 초(2017년) 마을에 들어왔음. 명예퇴직 후 귀촌할 곳을 찾다가 마을의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 정착했음.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줄곧 경찰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귀촌할 곳을 물색하던 중 개수리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정착했다. 고향으로 돌아갈까도 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귀촌지를 선택했다. 평창의 경우 올해 10월 KTX가 개통되면 수서역에서 51분만에 들어올 수 있다. 마을에 펜션이 매물로 나온 게 있어 사가지고 들어왔고 밭도 200평 정도 가지고 있다. 정착과정에서 마을 주민 대다수가 외지인이어서 원주민 텃세는 없었다. 마을의 쓰레기 줍기나 풀 뽑기 등을 하면 거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마을 규약이 잘 잡혀 있고 주민들 간의 사이가 좋다(전 이장이 마을의 체계를 잘 잡아놨다고 함). 또한 귀농 한 달여 만에 마을 반상회에서 마을 주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을 만큼 마을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 귀농인 B는 귀농 결심 후 고향인 산청, 함양을 거쳐 평창에 정착했음. 귀농지 선택엔 전 이장의 역할이 컸다고 함.

“경남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회사생활과 사업 등을 했으나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귀농을 결심했다. 아내가 아토피가 심했고 어머님 또한 건강이 안 좋아져 도시생활을 접기로 했다. 고향인 산청에 돌아가 딸기 농사를 지어보려 했지만 품목이 나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함양군 서하면 쪽으로 넘어갔다. 서하면 사과농장(7,000평 규모)에서 사과를 배우며 1년간 책임자 직책으로 있었는데, 주변인에게 온난화 때문에 올라가서 농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강원도 쪽의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원주와 영월 쪽 땅을 봤으나 지가가 너무 비쌌고 양구 쪽은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았다. 우연히 마을 땅을 보러왔다가 전 이장님을 만나 도움을 받아 정착을 결정했고 현재는 간이숙소(조립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빈집 지원을 신청했다. 도시 생활을 할 때 살던 경기도의 집은 아직 처분하지 못했다(이 집에 자녀(대학교 3학년, 2학년)가 살고 있고 내년쯤엔 집을 처분하고 마을에 집을 지을 예정).”

2.3. 경제활동

- 마을의 주요 농산물은 과거에는 고추였지만 최근에는 배추·무·고추·감자 등이 많이 재배됨.
- 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은 2개로 ‘개수2리 영농조합 법인’과 ‘장미산 영농조합 법인’임. 개수2리 영농조합 법인은 마을 이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절임배추,

학교운영, 체험 등을 위해 만들었음. 장미산 영농조합 법인은 마을 주민이 대표를 맡고 있고 농사와 농기구 활용 등을 위한 법인임.

○ 귀촌인 A는 연금과 펜션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음.

“펜션을 시작한 건 올 여름부터이다.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방 세 개만 하고 있다. 소득원은 연금과 펜션 소득이다. 마을 전체 가구 중 11가구가 펜션을 하고 있지만 펜션 협회와 같은 모임은 없다. 대부분이 펜션을 하면서 농업·건축·개인 사업 등을 병행해 하고 있다. 마을 귀촌인 대부분이 박사, 기업 이사 등 고학력에 여유가 있는 귀촌인들로 자산이 있거나 연금 소득 등이 있어 펜션이 주가 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는 몇 가구 안 된다.”

○ 귀농인 B는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작년에 마을에 들어왔고 현재 땅 3,300평을 구입해 일부는 사과를 심기 위해 개간 중이다. 나머지는 고추와 양배추 등을 키워 농협에 출하하고 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귀농교육 이수 시간 채웠음)을 받아 1,800평 정도 땅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군 단위의 대화 사과 작목반에 가입했다. 작목반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기까지 4~5년 정도 걸린다. 아직 사과가 자라는 중이어서 고추와 양배추도 추가로 심어 출하했다. 약 30% 정도는 개인적으로 판매했고 나머지 70%는 대관령 경매시장에 넘겼다. 귀농자들은 주작목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대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일정한 소득 없이 4~5년간 버텨내야 한다.”

“평창군의 사과 지원은 올해 8년째이다. 작년에 8명이 지원받았고 올해 지원받은 사람은 5명이다. 평창이 사과 주산지인 아니지만, 강원도 사과가 품질이 좋다고 인정받아 군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은 체험농장 형식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를 임대하는 데 10만 원씩 받고 있다.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잘 된다.”

2.4. 지역사회활동

-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을 규약이 중요했음. 전 이장의 경우 도시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 및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마을에 정립화된 규약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함.

“전 이장이 이장 취임 당시 6개월간 마을 조례를 만들었고 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해 반사회 때마다 고쳐 나갔다. 이후 마을 주민들 8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마을 규약에 따른 원칙이 생겼고, 어떤 사안에 반대하는 원주민들도 이미 서명을 했으니 큰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반사회에 참석하면 박수쳐주고 환영해주는 마을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전·현 이장 모두 마을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전 이장이 마을 체계를 잘 잡아 주었다.”

- 마을의 실정과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농·귀촌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전 이장님께서 재임 시절, 모급(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 이장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돈)을 못 내겠다는 귀촌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 귀촌인은 이장이 무엇을 했다고 돈을 걷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전 이장은 마을에 풀을 한 번 깎아봤는지, 겨울에 눈을 한 번 치워본 적 있는지를 되려 묻고 마을 실정을 설명해 줘 설득시켰다. 도시적 사고를 시골에 그

대로 가지고 오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 이장님 또한 귀농인으로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잘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마을 수도 기금을 못 내겠다는 귀촌인에게는 시골의 농로는 마을 주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땅이며,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농로를 내서 귀농·귀촌인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마을 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이렇듯 시골의 실정을 알고 들어올 수 있는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5. 삶의 질 실태

-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 지원이 필요함.

“개수리에는 보건소가 있어 벌에 쏘이거나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뱀에 물렸을 경우 보건소뿐이 아닌 평창 의료원까지도 해독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평창은 특히 산악 지형이어서 뱀이 많다. 작년의 경우 평창에서 뱀에 물려 두 명이 사망했다. 대화면에서도 한명이 뱀에 물려 위독했으나 원주에서 겨우 해독제를 공수해와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었다. 시급한 문제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대상 문화적 행사나 취미활동이 확대되어야 함.

“평창군 내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에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서 컴퓨터, 뜨개질, 미싱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마을에 들어와 있는 귀농·귀촌인들은 어떠한 강의가 어디서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관심이 있어 도서관에 들어가 본다면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의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마을의 고령자들은 게이트볼, 요가, 국선도 등 할 것이 많다. 게이트볼

은 게이트볼 장이 있어 사시사철 할 수 있고, 다목적체험관에서는 매주 월요일 스마트폰 사용법, 목요일 국선도, 격주로 요가를 알려준다.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2.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함.

“강원도의 경우 산지의 경사가 심해 모노레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북 청송, 경남 하동, 울릉도와 같은 지역은 모노레일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산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은 아직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고랭지 농사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 농사를 지으려고 구입한 땅에 경사가 있어 일반 차로 운행 시 차가 구를 위험이 있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모노레일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에서 땅까지 약 250m를 올라가야 하는데 농지까지의 도로 포장을 요청했지만, 군에서는 땅에 주택 없이 농사만을 위해 도로 포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는 모든 작물을 친환경·자연농법으로 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친환경을 하려면 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잘된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함안의 경우 산속으로 15km를 들어가야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귀농 교육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실정을 모르고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또한 농협 등에서도 친환경이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 농약을 안 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실정에서 친환경을 장려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도시의 실업자들을 농촌으로 유입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일자리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27% 정도인데, 귀농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농장을 만들어 도시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자급률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도시의 저소득자들이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귀농을 하라고 선전만 하지 말고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생계형 귀농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마을의 귀농·귀촌인들을 살펴보면 귀촌은 대개 자립능력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며, 귀농은 여유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귀농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그냥 주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여유가 있는 귀촌인들도 토지를 300평 이상만 구입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귀농인들만이 아닌 원주민들을 위한 교육 또한 확대해야 한다. 귀농인들의 경우 정책의 흐름을 잘 읽고 따라가는 데 반해 기존의 원주민들은 대개 농사만 지을 줄 알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농협을 통한 농자재의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화면의 경우 비료를 받을 때 농협중앙회를 통해 80%를 가져와야 한다. 가져오지 않으면 제재를 당한다. 현재 농자재의 10~15%, 많게는 20%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마진을 챙기고 있다. 지역 농협에서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공급하면 단가가 낮춰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가 있는 귀농·귀촌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균등한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자들이 들어오면 군에 중앙지원금이 더 많이 나온다. 정보가 빠른 귀농·귀촌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을 균등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

3.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2리

3.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약 30여 가구이며 이 중 귀농·귀촌 가구는 14가구임.
귀농·귀촌인 대부분 은퇴 후 여생을 보내러 들어온 경우임.
- 1960년대, 화전민 약 25가구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함. 하지만 1970년대, 전체 마을 가구 108가구 중 약 40가구의 화전민 가구가 빠져나가고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2013년에는 마을에 원주민 20가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함. 이렇듯 마을이 과소화되는 중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사지원2리의 대부분 귀농인들은 농사로 돈을 벌러 오기보다는 연금이나 자기 자산이 있는 여유 있는 귀농인들임.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오는 귀농인들은 사실 귀촌이나 마찬가지로 귀촌형 귀농인이라고 함.

3.2. 정착과정

- 귀농인 A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귀농을 결정했음.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마을에 들어왔다. 사지원2리를 선택한 이유는 땅이 마음에 들어서이다. 자녀들은 셋으로 현재는 모두 30대이며 귀농 당시 모두 분가시키고 마을에 들어왔다. 귀농 초기, 귀농인들 모임에서 귀농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했다. 귀농 교육이 농촌 생활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처음 1년간은 수익이 없어 굉장히 어려웠지만 현재는 수익이 괜찮다. 귀농자가 처음 2~3년간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 귀농인 B는 안산에서 장사와 사업 등을 하다가 2012년 마을에 들어왔음.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이 대학까지 마치면 귀농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귀농 전 땅을 보러 정선과 인제 등으로 많이 다녔지만 시기 등이 안 맞아 못 갔고, 사지원2리에 땅을 나와 보러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착했다. 귀농 교육은 따로 받지 않았고 농사는 이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농촌에 들어와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이장님 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농사를 배웠다.”

- 귀농인 C의 귀농 결정 요인은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쾌적성이었음.

“2014년 마을에 들어왔다. 마을에 들어오기 전 약 1년간 땅을 보러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 단양으로의 귀농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기청정도와 서울과의 접근성이었다. 미국에서 35년간 살며 사업을 하다가 정리 후 귀농을 위해 한국의 지난 5년간의 공기청정도를 살펴보니 단양이 가장 좋았다. 지자체의 귀농 지원은 전라도 쪽이 가장 좋았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 없었고, 단양은 서울과 두 시간 거리로 부담이 덜해 선택했다. 가곡면 어천리에 땅 750평을 사고 인근에 집을 지을 곳을 찾다가 사지원2리에 집이 나와서 마을에 들어왔다. 귀농 전에는 평택의 농장에서 8주간 귀농 교육을 받았다. 농장은 약 10만 평 규모로 벼와 버섯을 재배하며 6주간 교육을 받고 원하는 작목에 대해 2주간 표고버섯으로 실습을 했다.”

3.3. 경제활동

- 귀농인 A씨는 2012년 귀농한 후부터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음.

“처음에는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했지만, 표목상에서 신품종이라며 아로니아를 추천해줘서 시작하게 되었다. 포도도 조금 했지만 현재는 안한다. 시작할 당시에는 아로니아가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아니었지만 2013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아로니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많이 받았다. 농사는 필요할 때 인력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해 쓰고 있고, 동네 분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판매는 주로 직거래로 한다.”

- 귀농인 B씨는 주로 고추농사를 하고 있음.

“대개 한 해에 5번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봄에 가물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2번밖에 수확을 못했다. 도시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농사가 힘들지는 않다. 농사는 자연과 부대끼고 사업은 사람과 부대끼는다. 판매는 주로 기존의 인맥들에게 직거래로 하고 있다. 수매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원주민들과 비교해 수확량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데 일생을 농사만 짓던 사람들과 경쟁이 어렵다.”

- 귀농인 C씨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옥수수, 들깨 등을 하고 있음.

“표고는 단양군의 지원사업으로 보조 신청을 했지만 잘 안되었다. 군에서 지원한 첫해 보조 신청한 농가가 12농가가 있었으나 6건은 승인이 안됐고 나머지 6건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후 군에서는 새로운 버섯 농가의 지원은 받지 않고, 지원 중인 농가에 보조를 집중하기로 결정되

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의 판로를 살펴보면 귀농인들은 대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기존 주민들은 밭떼기 등의 계약 농사를 많이 해서 팔고 있다. 원주민들은 보통 1만 평 이상의 대농으로 돈벌이가 괜찮다고 한다. 농사로 돈을 벌려고 하면 적어도 2만 평 이상은 지어야 하는데 귀농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4~5천평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

- 농촌에 기반이 없는 도시민들이 귀농 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귀농 후 귀농 교육생들의 모임에 참가해보면 제대로 정착한 경우는 대개 귀향인들이었다. 시골에 집안 땅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 농사를 제대로 짓고 정착하지만, 그 외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반 없이 내려가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에 참가했던 60~70%는 땅을 못 구하거나 선뜻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귀농을 못했다고 한다. 귀농을 한 나머지 30~40% 역시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 지자체에서 농기계들을 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음. 장비 구입에 부담이 컸는데 귀농인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간편하게 빌릴 수가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함.

3.4. 지역사회활동

-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는 귀농·귀촌인들에게 호의적인 마을 분위기와 이장의 역할이 중요했음.

“귀향인인 전 이장이 귀농인들의 처지를 잘 알아 마을에 들어오면 잘 챙겨 줬다. 처음 마을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도 도와주고, 마을에 물난

리가 나서 막막할 때도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 현 이장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고령의 원주민들도 젊은 귀농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 귀농인들은 고령의 원주민 농사를 돕는 등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되어 텃세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다. 사지원2리의 경우 정말 텃세가 없는 편이다.”

- 귀농·귀촌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선진지 견학으로 마을 주민들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적립되어 있는 돈을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선진지를 견학할 때 사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타 지역에 가서 농사 방법도 배우고 식사도 하는데, 이것이 적응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 기금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 사람들, 특히 귀농인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기부금이 모인다. 마을의 귀농인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귀촌형 귀농인이어서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돌아가며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 복날마다 이렇게 잘 챙겨먹는 마을도 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 참 좋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기금으로 50만 원씩을 내고 들어오고 있으며, 기금을 내면 자연스레 마을 주민으로 수용되고 있다. 처음 마을에 들어와 기금에 대한 경계심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모아놓은 기금을 귀농·귀촌인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는 사정과 연유를 설명하면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원주민과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으로 올라올 정도로 큰 갈등은 아직 없다. 마을의 모임은 따로 없고 귀농·귀촌인들의 모임만 있다.”

- 귀농·귀촌인들이 시골에 정착하려면 작게나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안 짓는

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적응이 가능하다고 함.

“지인 중 한 분이 인천 강화 쪽 바닷가 바로 앞에 집을 지었다. 풍경도 좋고 다 좋지만 할 일이 없어 오래 못 버티고 나왔다. 반면 마을에 귀촌하신 분 중에 취미로 침을 놓는 분이 있다. 마을 주민들이 벌에 쏘이거나 몸이 안 좋으면 그분을 찾는다. 농사를 안 짓더라도 취미 생활이라도 있어야 시골에 적응을 할 수 있다.

3.5. 삶의 질 실태

- 사지원2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지와 문화 등은 크게 개의치 않고 들어온다고 함.

“문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시골의 땅과 공기, 경치 등이 좋아 들어온 사람들이라 문화시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아 사는 데 불편함은 못 느낀다. 귀농 후 일이 있어 도시에서 하루 자보니 공기도 안 좋고 시끄러워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웠다. 또한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월과 제천에 개봉관이 있어 보고 올 수 있다. 영월의 경우 군에서 50%를 보조해줘서 도시의 절반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다.

- 작은 질환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크게 아플 때 병원은 좀 문제가 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손쉬운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사지원2리에서 영월까지는 차로 20분, 단양은 25분, 제천은 30분 거리에 있다. 큰 병원은 없고 작은 병원이 있어 작은 질환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아플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큰 병원이 원주 세브

란스 병원으로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한 예로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소장이 꼬여서 영월의 작은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하루 방치했다고 한다.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소장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마을에 별이 많아 해독제 등은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내(귀농인 A)와 같은 경우에도 별에 쏘여 119를 불러 실려 갔던 적이 있었다.”

3.6. 기타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함.

“불필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이를 한데 모아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바꿔야 농촌이 살아날 것이다. 한 예로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 내에 정자를 만들어 놓았지만 외딴곳에 만들어 놓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원 등을 없애고 한곳에 모아 유통구조를 바꿔주면 우리나라의 농촌이 살아날 것이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이 개인이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거칠 것이 아닌 지역 농협에서 전국의 농약이 필요한 농가를 추산해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한다면 가격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4.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산너울마을)

4.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등고리의 전체 가구 수는 약 60여 가구로 이 중 산너울마을의 가구 수는 34가구임. 마을에 입주한 34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는 1가구이며, 나머지 33가구는 은퇴하여 농촌으로 내려왔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 20~40대 대부분이 산너울마을에 거주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마을의 귀농·귀촌인의 변화는 없었음. 산너울마을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계획된 마을로 구성원의 큰 변화는 없음. 등고리는 조씨, 안씨, 양씨의 집성촌이었지만, 산너울마을이 들어선 이후 집성촌의 의미가 희미해졌음.

4.2. 정착과정

- 귀촌인 A는 교원 퇴직 후 마을 조성 중인 2008년에 전입했음.

“서천에서 선생님이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산너울마을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귀촌을 위해 서천에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서천군에서 지원하는 마을조성사업을 알게 되었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마을이 조성되기 전에 들어왔다. 그런 형태의 가구가 3가구 있었다.”

- 귀촌인 B는 입주시기인 2009년에 마을로 들어옴.

“공장자동화 관련 제조업에서 근무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내고 싶어 부인과 귀촌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역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없는 곳을 찾다가 귀농페스티벌에서 산너울마을을 알게 되어 입주 신청을 하였다. 환경은 좋았지만, 병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부인의 반대가 심해 귀촌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4.3. 경제활동

- 귀촌인 A의 주요 소득원은 연금으로 농업은 하지 않고 있음.

“학교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마을 주민 모두 귀촌인으로 농업 소득을 위한 관련 작목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마을의 젊은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나이 든 분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 귀촌인 B는 2011년부터 7년간 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월 13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아 생활하고 있음.

“시초면 들꽃동산마을 사무장을 하다가 2016년부터 한산면 신성리 갈숲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출퇴근 교통비(왕복거리 50여 km)를 고려하면 급여보다는 지역사회의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리 근처 7개 마을이 연합하여 서천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10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신성리 문화갈대축제를 준비 중이다. 그 외의 부족한 생활비는 귀촌하기 전에 저축한 자금과 마을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취득 후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강의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 마을사업으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음.
“귀농·귀촌인이 마을사업으로 6차 산업에 뛰어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넓은 농지나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다. 6차 산업의 경우 마을에서 추진했었으나, 다른 마을보다 주민들의 의식이나 의지는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화하기에는 부족하여 진행되지 못했다. 6차 산업은 소득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워지는 마을도 굉장히 많았으며, 마을회의에서 소득사업보다 문화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마을의 경우 인적구성상 사업 참여가 아닌 참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마을사업은 소득사업보다는 경관, 생태 관련 사업에서 시작하여 문화·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마을의 리더들이 주민들의 관심을 꾸준히 유지시켜 줘야 한다.”

4.4. 지역사회활동

- 귀촌인 A는 2015년부터 2년간 전임 마을 대표를 맡아 마을 일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전직의 경험을 살려 생활지도 관련 학교강의를 연 3~4회 나가고 있고 그 밖에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근 반석샘물교회, 판교 수송리 교회 등 다양하게 나간다.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밖으로 크게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젊은 귀촌인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 귀촌인 B는 전전임 마을 대표로 활동하다가 현재 산너울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임.

“산너울마을은 마을 조성 후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올

해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사업으로 마을 환경 개선 및 경관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량강화사업으로 등고리 홍보 영상 만들기가 있는데, 영상을 직접 찍어서 편집만 외부에 맡긴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등고리 전체가 다 하는데 산너울마을과 기존 마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마을사업 추진 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지향점 설정이 중요했음.

“마을사업을 하면서 원주민과 귀농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지향점인 서로 어울려 잘 살아보자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진행하고 있다. 등고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입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마을 생활환경 개선의 목적과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해 나감으로써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각 단계별 사업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완료 후 결과에 대해 마을 회의에서 평가, 논의하여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은 개성이 강하고 독립된 가정생활을 영유하는 것에 익숙하여 공동체성이 약해 지역에 내려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다.”

4.5. 삶의 질 실태

- 주거 및 자연, 교육환경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인근 판교중학교의 경우 학생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함.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 및 교통 서비스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 종합병원은 군산, 익산, 대전 등으로 가야 하고 소규모 병원은 판교와 서천읍 내에 있어 불편하다. 서천읍 내에 원광대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추진되고 있지 않았다.”

“마을에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많은데 마을버스는 하루 2회만 운행되어 불편하다. 대형병원이나 편의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 확보가 어렵고 마을 주민에게 계속 부탁하기도 힘들어 다양한 활동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 마을에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모임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연극동아리인 산너울패는 초반에는 마을 주민들만 참여하다가 현재는 산너울마을 주민 2~3명과 서천 지역의 학생,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말에 공연을 진행한다. 그 밖에 탁구, 붓글씨 동아리 및 장 담그기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붓글씨 동아리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몇 명이 군 내 대회에서 입상했다. 마을 입주 초반에 비해 활동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장 담그기의 경우 취미활동에 그쳐 판로가 없어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4.6. 기타

-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귀농·귀촌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 경직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음.

“서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보다 가능한 잘 사는 지자체에 귀농 귀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잘 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나 복지사업들이 많아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

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비나리마을)

5.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의 전체 가구는 80가구이며 귀농·귀촌 가구는 28가구로 작년과 비교해 3가구가 늘었음. 한 가구는 농사를 지으려고 마을에 들어 왔지만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는 못했고, 다른 한 가구 역시 농사를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마을에 농지가 여의치 않아 다른 지역에 농지를 구했음. 마을에 거주하지만 농사는 다른 지역에서 짓고 있음. 나머지 한 가구는 귀촌으로 마을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음.
- 마을에 귀농인의 집이 있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지는 않고 몇 개월만 살다가는 가구도 종종 있음. 올해에도 한 가구가 귀농인의 집에 머물다가 몇 개월 살고 타 지역으로 옮겼음. 귀농·귀촌인 가구 중 약 7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28가구 중 절반은 간접받기 싫어하는 독립적 귀촌인들임.

5.2. 정착과정

- 귀농인 A는 2014년에 귀향했는데 젊어서부터 시골로 오려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고 함.

“풍호1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로 나갔다. 현재까지도 마을에 족친(族親)이 있다. 도시에서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퇴직 후 연금이 나와 먹고사는 문제는 없으니, 농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봉화군은 청정 봉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귀향 전 마을에 와보면 청정 봉화와는 거리가 멀었

다. 겉으로 보면 다 푸르러 보이지만 땅속은 쓰레기 더미, 농약병, 비닐 등이 가득하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환경 운동을 하려고 돌아왔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한강 지킴이 활동도 했었다. 봉화는 83%가 산지 지형으로, 귀향 전 환경 운동을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았다. 귀농·귀촌 교육은 마을에 들어와서 받았다.”

○ 귀농인 B는 도시의 바쁜 생활이 싫어 작년(2016년) 귀농했음.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 아내와 얘기하다보니 시골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마을에 들어왔다. 고향은 영덕이고 대구 수성구에서 살다가 귀농했다. 아내는 귀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양재 박람회로 시작으로 상주, 문경, 여수 등을 여행 삼아 돌아다니다 자연스레 동화시켰다. 올해 만 37세로 젊은 귀농인에 속한다. 귀농 교육은 봉화군 상호면에서 전원생활 학교를 다녔고 마을에 들어와 비나리 학교에서도 받았다. 비나리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 협동농장을 하고 있는 분을 연결해 줘 그곳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멘토·멘티 지원을 받았다. 마을에 이러한 정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5.3. 경제활동

○ 귀농인 A는 주로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농토는 2,000평 정도 가지고 있음.

“2014년 귀농 후 환경운동을 하며 농사도 지어보려고 했지만 농사가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잘 나지 않아 정리하고, 현재는 대추나무와 들깨를 심었다. 수익성과 관계없이 손이 덜 가는 작목을 선택했다. 연금 소득이

있어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어 환경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 귀농인 B는 작년 7월 귀농 연수원에 전입 후 협동농장 봉화사람들에 소속되어 있는 친환경 농가(하우스 2,000평, 노지 8,000~9,000평 규모)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올해 8월까지 인턴생활을 했고 인턴생활을 하면서 논 1,200평을 임대했다. 얼마 전 수확을 했는데 임차료는 5가마니지만 수확은 10가마니밖에 안 나왔다. 처음 농사를 짓다보니 많이 못했다. 안 해본 농사일을 하니 몸은 힘들지만 협동농장을 통해 젊은 사람들끼리 협업하니 동화는 잘 된다. 올해 작목반에 가입하기 위해 인증을 취득했고 협동농장을 통해 학교 급식에 납품할 예정이다. 협동농장을 통한 판로가 보장되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하우스의 경우 2월부터 시작해 4월부터 다양한 작물을 학교 급식으로 꾸준히 납품할 수 있다.”

5.4. 지역사회활동

- 마을 제사인 동제는 남아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사회활동들은 모두 사라졌음.

“어린 시절 마을에 상조계, 초동계, 두레 등이 있었는데 은퇴 후 마을에 돌아오니 다 없어졌다(귀농인 A). 이에 따른 귀농·귀촌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의 고리가 사라졌다. 도시적 사고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모든 게 토착민과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두레 사상에서의 계 모임이 존속되었다라면 자연스럽게 융화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마을에 아직 토착민이 많아 마을의 결정에 대해 귀농·귀촌인이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의 격동기로 보인다.”

- 원주민과 협동농장과의 갈등은 아직 없음. 부딪칠 일이 없어 원주민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방관하는 입장이라고 함.

“어린 시절에는 동네 소유의 땅도 있었고 마을 기금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 깨지고 없다(귀농인 A). 이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담이 없는 측면도 존재하는데, 있으면 토착민이 주인행세를 하며, 없으면 귀농·귀촌인들이 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토착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곳의 주인인데 귀농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반감이 생기기도 한다. 젊은 귀농인들은 마을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친목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 마을의 권역사업을 할 때,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함.

“마을사업을 할 때, 전체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진행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예로 비나리 학교 앞 고추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고 한다. 권역사업을 할 때 전체 주민의 동의 후 시행이 된다면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걱정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 서로 경계하는 구조가 되었다. 방관만 했던 일부 주민들은 마을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경우도 있다.”

- 마을의 귀농·귀촌인 비율이 1/3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세력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함.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주도한 다양한 마을 단위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인근의 춘양면에서는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70%로 그들을 주도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선진적 활동을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명호면의 경우 마을에 인재들은 많지만 원주민들의 눈

치가 보여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또한 춘양면에도 비나리 학교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부지 일부를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주면서 전기세를 내주기로 해서 부담이 없다. 하지만 비나리학교에서는 전기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5.5. 삶의 질 실태

- 명호면의 경우 자체적인 모임은 없고 귀농·귀촌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있음. 비나리 학교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하고 있는 귀농인 C씨의 경우 1주일에 1회 책읽기 모임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닌 봉화 전체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하고 있다고 함. 명호면에서 하는 모임은 요가와 사물놀이 정도임. B씨의 아내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A씨는 작년 파키스탄에 갔다가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을 사물놀이 모임을 추진해보려고 했지만, 모집이 잘 안 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음.

- 마을에 있던 중학교가 거점 중학교가 되었음.

“봉화군에서는 상운, 법전, 명호, 재산, 봉성면의 다섯 개 중학교가 폐교되어 현재 청량중학교가 거점 중학교가 되었다. 시설이 우수하고 교육 환경도 좋으나 상운면의 경우 2명밖에 학교를 안보내고 있다. 거리가 있어 영주나 봉화읍으로 보내지 산골로 안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얼마나 학교를 특화시켜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귀농 후 아이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올해 8살, 6살의 자녀가 있음(귀농인 B). 현재 명호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다닌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사교육 비용이 안 들어 좋다. 작년에

마을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지원이 나와서 현재까지 슬리퍼 두 켤레 사준 게 다였다. 젊은 층이 시골에 오면 교육적 측면으로는 너무 좋다. 자연과 가까이 있고 학교의 정원도 많지 않아 그룹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꿈꾸며 오지만, 농촌의 많은 학교들이 중학교때부터 기숙하는 학교가 많아 오히려 못 보는 경우도 생긴다. C씨의 경우 2013년 귀농 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3년 후 중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진학하며 오히려 현재는 더 보기 어렵다고 한다.”

-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귀농·귀촌인 자녀가 원주민 자녀의 비율을 넘어섬.

“2013년 당시 초등학교의 정원은 약 20명으로,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의 자녀가 섞여 있었지만 현재는 40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귀농인들 자녀로 역전되었다. 작년에 명호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 명이었다. 예전에 귀농한 사람들의 경우 학교 아이들의 텃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지만 현재는 전혀 없다. 또한 현재는 학교 정원의 10명 정도가 산촌 유학으로 학교의 구성원이 계속 바뀌고 있다.”

5.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함.

“마을에서 농사만 짓던, 고령화된 영세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서류작업 등이 익숙해 정부 보조 등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골에서의 지원은 원주민들 중 현지 유지들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사 이외의 다른 일을 안 해본 영세한 기존 농업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소외받는 원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의 권역 사업 시행 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권역사업으로 7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도 인건비는 한푼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마을사업의 사무장을 맡은 귀농인의 경우 5년간 150만 원을 받는 게 다라고 한다. 활동가나 실무자에게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마을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농어촌공사 등을 끼고 하는 방식보다는 군에서 업자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면 450만 원 선에서 지을 수 있지만, 정부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형태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업자들 배만 불리는 형태로 보인다. 개선 방안으로 군에서 업자와 직접 만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착자금 3억 원을 받아 갚는다는 것이 생계형 귀농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봉화의 경우 땅값이 평당 10만 원 선으로 3천 평을 구입할 수 있다. 3천 평에서 사실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다. 이러한 실정인데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안 사는 것도 불안해지는 실정이다.”

“귀농교육 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진 것 없이 내려온 생계형 귀농자의 경우 주택 신축 지원금 7천만 원은 사실 의미가 없다. 여유 자금이 없어 신축할 때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원금은 이미 집을 지은 후 주택이 담보로 잡히고 나서야 나온다. 지원 절차 또한 굉장히 까

다롭다. 주택 신축 자금과 같이 사실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아예 교육을 하지 말든지 절차 등을 면밀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귀농 정책 지원도 마을 측면에 도움이 되지만, 원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니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정착자금과 같은 지원금을 귀농·귀촌인 개인이 아닌 마을에 준다면 잡음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젊은층이 환경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은 관내 제련소를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운동 단체로 봉화군 내에서 조직 돼 활동하고 있다. 봉화군 석조면에 제련소가 있는데 1970년대에 생겨 올해까지 48년간 이어져 왔다. 청정 봉화라는 슬로건을 군에서 걸고 있지만 제련소 때문에 일대의 식생이 망가지고 있다. 낙동강은 식수로 사용되는데 안동호에서 침전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부산까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올해도 안동호에서 물고기가 떼죽음되는 사태가 몇 차례 있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인 자연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회원은 150명으로 봉화군 내의 조직이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환경 단체와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젊은층이 들어와 활동해야 활성화될텐데 젊은 층이 이러한 환경단체에 들어오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 주는 등의 견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층으로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귀농 인턴과정에 대해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음.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 인턴과정을 작기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 인턴은 4~8월까지 5개월이며 멘토에게 40만 원, 멘티에게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목의 생육기간은 2월에서 11월경으로 5개월의 지원은 짧다. 8월 이후 농가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부담이 되며 귀농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없다. 작기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6.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62가구이며, 귀농·귀촌 가구는 23가구로 올해 4가구가 새로 들어왔음. 한 가구는 아직 농지를 구입하지 못했고, 다른 한 가구는 농지는 구입했지만 현재 작목을 결정하지 못해 고민 중이라고 함. 다른 두 가구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음.
- 귀농·귀촌인은 50~6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40대가 많음. 마을 전체 가구 중 40대 이하의 가구는 10가구 이내임. 대부분 귀농인들로 포도 농사를 주로 짓고 있으며 마을 행사 등에 협조적임.

6.2. 정착과정

- 면담 귀농인 부부(남편 A, 아내 B)는 3년 전(2014년)에 마을에 들어왔고 재작년(2015년)에 전입신고를 했음.

“고향은 인천이고 40대 초반이다(귀농인 A). 2013년 학교급식을 시작하는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약 1년간 있었다. 마을에 땅과 빈집이 나와서 상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귀농교육은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100일 체험농사교육(농가 10곳에 10일씩 머물며 교육)을 받았고, 귀농 후 지역에서 하는 생태귀농학교 등의 귀농교육을 받았다.”

“금산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 살았다(귀농인 B). 귀농 전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교육 담당직을 맡았다. 2014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귀농했다.”

- 정착과정에서는 부부가 이상향이 비슷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함.

“귀농할 때 3년만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들어왔고, 비록 모아둔 돈은 까먹고 있을지라도 계획의 80~90%는 이뤘다.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 초기 밭 1,500평을 임대할 때, 친환경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하면 보통 땅주인들이 빌려주지 않는데 좋은 분을 만나서 쉽게 빌렸다. 집 또한 시골에서는 대개 계약서도 안 써주고, 계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대지와 집이 따로 설정돼 집주인이 명확치 않은 등 집수리 비용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의 집들이 많다. 하지만 역시 운 좋게 지원 대상에 충족하는 집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자녀는 3살 아이와 올해 12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있다.”

- 귀농인 C씨는 미혼으로 작년(2016년)에 마을로 들어왔음.

“올해 40대 중반으로 고향은 경주이다. 이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을 받고 완주에 2년간 있다가 상주로 들어왔다. 완주에서는 협동조합인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 2년간 있었다. 귀농교육은 귀농 전 귀농운동본부의 교육과 상주에 와서는 농기계 교육, 협동조합 교육, 공동체 교육 등의 귀농센터 교육을 받았다. 정착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빈집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계약서를 받아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았고, 또한 시골의 집이 도시처럼 잘 돼 있지 않아 냉난방이 안 돼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사소한 문제가 많았다.”

6.3. 경제활동

- 마을에 협업농장의 형태는 아직 없고 작목반은 면단위로 있음. 포도는 대부분 개인이 하고 있고, 출하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협업농장을 하려면 상시로 이끌어갈 2~3명이 필요한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에 호의적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농업기반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함. 면단위의 작목반이 있지만 친환경으로 하는 경우 출하가 어렵다고 함. 유기농은 포도의 송이가 크지 않아 상품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친환경의 경우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음.
- 모동면에서 작년 폐업한 포도 농가는 23만 평에 이름. 올해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기후가 예년과 다르다고 함. 이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올해가 최악의 흉작이었다고 함. 비가 많이 와서 당도가 안 올라 판매용이 나오지를 않았음. 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다른 종류의 포도 농사 시작을 많이 하고 있음.
- 귀농인 부부(A, B)는 재작년(2015년) 밭 1,700평을 구입했고, 작년(2016년) 이장을 통해 포도밭 1,500평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음.

“올해는 하우스를 500~6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한다. 캠벨 품종이 시장성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서 신품종인 샤인머스캣이나 유럽 품종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유럽 품종을 하려면 하우스가 필요하다. 또한 주 작목이 아닌 동시에 할 수 있는 추가 작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올해와 같이 뗏돼지 등으로 주 작목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작목이 필요한데 옥수수나 들깨 등을 해보려고 고민 중이다. 현재 주거지는 임대로 2019년도에 계약이 끝나므로 내년에는 집을 지으려고 한다. 2019년 이후로는 기반을 갖춰 안정화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다.”

- 귀농인 C는 작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마을에 들어와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함. 올해 밭 300평을 구입해 포도, 밭 700평을 임대해 복숭아를 심었음.

“소유 자본이 제한돼 있는데 작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작년과 올해의 수익을 비교해 보면, 작년엔 외부 강의 등의 소일거리로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농사를 짓고 나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농은 땅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올해 농사 시작 후 금전적 손해를 봐서 작목에 대한 고민과 농업 이외의 목공 공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 경제활동과 관련해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 진입의 어려움과 도시적 사고방식이 농촌에 들어오는 데에 우려를 표했음.

“돈이 있는 귀농인이 아니면 가공이나 6차 산업 등은 어렵다. 신규 귀농인들은 농사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개인이 시설을 갖추기 쉽지 않고 시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법적 문제가 따른다. 마을 단위로는 작목이 같으므로 수확기가 같아 관리할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포도즙의 경우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잼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자가소비하는 정도만이 가능하다. 기계를 빌릴 수는 있지만 판매는 불가능한 게 법적 문제이다.”

“도시적 생활 방식이 농촌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같이 농사를 짓는 옆의 농가를 경쟁업체라고 생각하고 기술과 판로 등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도시에 살다가 마을로 돌아온 귀향인들이 도시적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다. 사업가적 마인드를 농촌에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경쟁적 사고를 전파하고 있다.”

6.4. 지역사회활동

- 귀농인들의 정착에 마을 리더(이장)의 역할이 중요했음.

“마을 이장님은 귀농인이 이장이 될 만큼 지난 10년간 행적을 잘 쌓아왔다. 본인의 농사가 있어도 우선 마을 업무를 돌볼 정도로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다. 행정 업무 또한 친한 사람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공정하게 하고 있고 특히, 노인회에서의 신뢰가 탄탄하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 모두 이장을 잘 따르고 있다.”

- 귀농 후 원주민들의 텃세나 불화는 없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함.

“귀농 후 원주민의 텃세는 딱히 없었다. 본인들의 땅, 농지 등의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없었다. 마을 어른들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저희 내외의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간섭이 아닌 친환경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알고 걱정을 해주신다. 마을 어른들 중 마을 순찰을 다니며 농사하는 것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다. 원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사실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불편하다.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시골에서의 공동체적 시각에서 이견 좀 아닌데 싶을 때도 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지인이건 귀농인이건 간에 한쪽 발만 살짝 들여 놓고 성과가 나오면 이견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계산적·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다.”

- 어르신들 중 시골에서는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아이가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마을 활동에 참석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는데 마을의 어른들은 가정을 우선시하는 젊은 층의 사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함. 이장이 마을 회의 때, 부녀회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보상은 아니더라도 수고했다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동네 어르신들에게 수용되기가 어려웠다고 함.

- 면담한 귀농인들 모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마을에 들어와서 시골에서의 불편은 예상하고 왔으며, 대신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방을 열었고 모동면 작은도서관도 그 일환임.

“모동면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진행한 활동들은 캘리그래피, 아동 미술, 영어회화, 피아노, 종이접기, 바느질, 한지공예 사진, 태권도, 책 읽는 밤 등이 있고 장터, 다문화가정 교육 등에 장소 대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고 모두 재능기부 자원봉사 형태였다. 오히려 이렇게 도서관을 키워 놓고 나니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학업 관련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보니 일부 학무모들 사이에서는 학업 관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 불만인 가정도 있다. 축제 때는 도서관 관련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제에 도서관이 빠져선 안 될 부분이 되기도 했다. 농사만이 아닌 이러한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은 회의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시니어 클럽에서 8명이 지원해 농번기 도서관 청소와 정리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도서관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6.5. 삶의 질 실태

- 면에 초등학교가 두 개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음. 초등학교 두 곳 중 한 곳은 특성화 학교임. 고등학교는 정원이 모자라 내년에 폐교될 예정이라고 함. 중학생 부모들은 시내나 인근 영동군 황간면, 대안학교 등으로 보내려고 준비 중임.

- 면담 부부의 경우, 농촌에 내려오니 아이들과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함.

“도시에서 살아가는 지인들은 새벽부터 출근해 아이가 잠들 때 들어가는 생활로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농촌에 와서 아이를 키우니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어 너무 좋다. 마을 주민들도 본인이 귀농을 원해서 들어온 경우보다는, 아이를 위해 귀농을 결정한 부부들이 몇 가구 있다.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아이를 우선시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마을 어른들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이 눈치가 보일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 어린이집과 산부인과의 경우 취약한 부분이 있음.

“모동면과 황간면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나, 얼마 전 사고 등으로 없어져 우리 부부의 경우 현재 첫째 아이를 20분 거리인 추풍령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첫째 아이가 귀농한 해 황달이 왔는데, 인근에 병원이 없어 구미까지 치료받으러 갔었다. 현재 임신 중인 둘째 아이의 병원은 대전이다. 시내에 개인 산부인과가 있지만 40분 거리로 대전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응급실에 산부인과 진료가 불가능해 개인 산부인과에 들러 응급실로 간 경험이 있었다.”

- 마을의 어르신들 중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태우는 경우가 있다고 함. 하천변에서 이것저것 태우는 경우, 밭 옆에서 농약병과 쓰레기를 태우기도 한다고 함. 마을 이장이 쓰레기 분리 관련 교육을 준비 중에 있음. 올해 귀향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합세해 마을 회의에서 공식화되었음.
- 현재 한 통신사에서 고속인터넷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양리의 경우 아직 광케이블도 보급되지 않아 전화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올해 3년째 민원을 넣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된다고 함.

6.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과 집들이 비용 보조 사업이 있는데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주택수리비는 기존 총 500만 원, 자부담이 20%였지만 현재는 총 1천만 원, 자부담 50%이다. 기존의 500만 원으로는 실질적 수리가 어려워 1천만 원까지 증액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자부담이 50%까지 늘어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있다. 또한 집들이 비용이 40만 원 나오지만 아무리 작은 마을이어도 마을의 인구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

“농협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지원보다는 농업인에게 자금 융통의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정책 사업인 보조 사업에 농협을 많이 끼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영세업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귀농한 사람을 위한 사업 혜택이지만, 귀농인들에게 혜택은 없고 업자들 배만 불리는 실정이다. 비닐하우스를 예로 들면, 지원 사업에 업자를 끼고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개인이 견적을 냈을 때와 다르게 단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단가가 10~20% 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귀농인들이 실제로 쓰게 되는 비용은 비슷하다. 농업인들이 지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보급이 많이 된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들을 모아서 농업인 스스로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과자 봉지와 같은 생활 비닐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농촌에 이러한 시설이 정부 차원에서 보급될 필요가 있다. 폐비닐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생활 비닐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쓰레기 수거·처리하시는 분들께서 분리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1리(홍현마을)

7.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행정적으로는 109가구지만, 펜션 건물에서 세대를 나눠 놓는 등의 이유로 실 가구 수는 95가구임. 귀농·귀촌인 가구는 22가구로 1가구가 나갔고, 2가구가 새로 들어왔음.
- 마을이 해안 도로를 따라 길게 분포되어 있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자연마을에 밀집해서 살고 있고, 귀촌인들은 해안도로를 따라 펜션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2004년 이후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고 있음.

7.2. 정착과정

- 귀촌인 A는 2010년에 마을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귀촌했음.

“동생이 남해에 있어 놀러왔다가 마을이 너무 좋아 정착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김해에서 보냈으며, 이후 쪽 서울에 살다가 마을에 들어왔다. 귀농 당시에는 산골에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도시 생활을 선호해 조율 과정을 거쳐 남해로 들어왔다. 남해에서 대학을 나오고 정착해 살고 있는 동생이 집을 짓고 땅을 사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처음에 밭터 300평 정도를 사서 집(펜션)을 짓고 들어왔는데 처음 3년은 굉장히 힘들었다. 원주민들이 딱히 나쁘게 하는 것도 없고 호의적이지만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 당시 귀농·귀촌 교육 없이 마을에 들어와 농촌의 실정을 잘 몰랐다. 게

다가 초기에는 펜션에 손님이 많아 집에만 있어 마을 주민과 교류가 없었다. 텃밭도 조금 있었지만 펜션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힘들어 현재는 안 하고 있다.”

- 귀촌인 부부(남편 B, 아내 C) 또한 마을의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 정착한 경우임.

“2010년 여름에 땅을 샀고, 2013년 퇴직하고 마을에 들어왔다(귀촌인 B). 저와 아내 모두 서울 토박이며,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 마을에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마을에 들어왔다. 2010년 땅을 구입하기 전 남해에 여러 번 오가며 귀촌지를 꼼꼼히 살펴보다 그 당시 마을 새마을지도자가 이 마을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농수산물도 풍부해 먹을 것 걱정이 없음)을 듣고 결정했다. 아내는 귀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3년만 살아보고 정 안되면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다.”

“처음 구입한 땅에는 허가가 나지를 않아 집을 못 짓고 그 땅 옆의 집을 구입해 얼마 전까지 살아 왔다. 귀촌 후 5년간 사농은 땅에 집을 지으려다 결국 못 짓고 얼마 전 미조면 공장 쪽으로 이사했다. 미조면 땅 약 500평에서 어간장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엔 소일거리로 하려고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어 이사를 갔다. 흥현리에 처음 구입한 땅은 아직 가지고 있고 집은 귀촌인에게 팔았다. 귀농 교육은 2012~2013년 서울 관악구청과 ○○귀농귀촌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다. 내려와서는 ○○대학교 창업교육센터를 1년간 다녔고 2014년도에 ○○대학교 식품가공과정 교육을 1년 받았다.”

7.3. 경제활동

- 귀촌인 A는 귀촌 후 지금까지 줄곧 펜션을 하고 있음.

“초기에는 6채까지 하다가 현재는 4채만 하고 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아 주말에는 방이 거의 다 차고 주중에는 50% 정도 예약이 됐다. 2016년 이후 손님이 많이 줄었다.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무조건 저렴한 가격의 방만 찾으려고 한다. 주중 숙박 비용은 6만~10만 원이고 주말은 10만~15만 원을 받고 있다. 귀촌 후 처음 책정한 가격으로 계속 영업 중이다. 홍현리에만 펜션업체가 10개가 넘게 있다. 다른 마을은 펜션 협회 등이 있는 곳도 있지만 홍현리에는 펜션 간의 교류가 없다. 다들 자기 일이 바빠 서로 만날 시간 내기도 어렵다.”

- 귀촌인 부부는 어간장 사업을 하고 있음.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귀촌을 한 것은 아니지만 취미 삼아 어간장을 만들다 보니, 전통 방식의 우리 간장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논산 쪽에 지인이 있어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남해에 멸치와 마늘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멸치와 갈치 등 이것저것 해보다 멸치가 가장 적합해 현재는 멸치만 하고 있다. 어간장은 특허를 받았고 어된장은 아직 특허를 못 받았다. 타 업체는 플라스틱을 쓰지만 우리는 항아리만 사용해 특허를 받았다. 현재 큰 독이 50개 있고 50개를 더 주문해 확장해 가고 있다.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아내와 같이 들어서 하고 있다. 수산물 기술센터와 수협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특허를 받고 난 후에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은 못 받았다. 현재 농업경영체로 땅을 가지고 있어 귀농·귀어·귀촌에 모두 포함이 된다. 농사는 짓지 않고 땅에 나무와 선인장 등을 심었다.”

- 귀촌인 부부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계기는 전통 방식의 간장을 후손에게 물

려주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함.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양조간장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왜간장이다. 화학적 간장으로 우리 전통 간장은 명맥이 끊겼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우리의 것을 물려주고 싶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뀌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해어간장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간장이다. 판매되는 간장은 4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으로 2병에 14만 원을 받고 있고, 로컬푸드엔 6만 원씩 받고 있지만 비싸다고 한다. 사실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손해 보고 팔고 있는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각오로 하고 있다. 현재는 남해군 특산물로 인정을 받았고 남해군 농협에도 납품하고 있다. 집사람이 서울의 시장을 겨냥해 한 달에 한번은 COEX와 aT센터 등의 농산물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올라간다. 딸 아이는 함께 마을에 내려왔고, 현재 서울에 있으면서 식품 관련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영업팀장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고 서울 쪽에서 공부하면서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 공부를 마치고 3년 후 쯤에 마을로 돌아올 계획이다.

- 남해와 같이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연금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함.

“마을에 들어와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원주민과 싸우면서도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농사는 정말 어렵고 어업은 더 보수적이다. 배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배의 관리가 힘들고 어업권, 영업권, 허가권 등을 받기가 어렵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영업권 등을 팔고 싶어 해서 돈이 있으면 구입은 가능하지만 기반이 없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업권의 가격은 서해보다 남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통발배, 낚시배 등 가격이 다 다르다. 따라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원주민과 관계가 좀 어려워도 살아가지만 아니라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

7.4. 지역사회활동

-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려면 스스로 원주민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귀농·귀촌인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은 현지의 원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정보가 없고, 귀농·귀촌인 모임에서도 원주민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정보에 한계가 있다. 우리들 모두(귀촌인 A, B, C) 마을 원주민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저(귀촌인 A)같은 경우 봉사활동도 많이 해 군수에게 감사패도 받았다. 정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원주민과 못 어울리면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다. 마을은 공동체로 도시의 정서와 다르며, 시골의 법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집성촌의 경우 원주민들의 결집이 강해 귀농·귀촌인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귀농교육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홍현리의 경우 집성촌으로 마을 주민들이 다 친인척 간이다. 이러한 씨족 사회의 경우 조합원으로 들어갈 때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귀농 전 지인에게 집성촌의 귀농·귀촌인 평가 방법을 들었는데 좋다고 나쁘다 둘 중 하나로 보통이 없다고 듣고 왔다. 즉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한 명이 나쁘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쁘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귀농교육 때 세심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7.5. 삶의 질 실태

- 남해와 같이 관광지의 경우 거점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 수단이 필요함.

“홍현리의 경우 읍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7번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읍으로 나갔다 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차가 없는 사람이 관광을 오려고 해도 차편이 안 돼 못 오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다랭이 마을을 들렀다 독일마을로 가려면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 읍으로 갔다가 다시 가야 하는 실정이다. 군·국가 보조로 ‘100원 택시 사업’을 내산마을 쪽에서 하고 있으나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내산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2번 다니는 마을이다.”

- 취미 여가생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 A씨는 현재 여성능력 개발센터에서 바느질, 네일아트, 미용, 그림 등을 배우고 있다고 함. 서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울 장소도 시간도 없었는데 귀촌 후 남은 시간에 자유롭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어 너무 좋다고 함.
- 마을에 귀촌해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물건이 고장 났을 때 A/S를 받는 부분이라고 함.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읍까지 들고 와서 수리점에 맡겨야 하며, 핸드폰을 고치려면 진주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귀촌인 B). 저(귀촌인 A) 같은 경우 펜션의 싱크대와 보일러를 큰 업체에서 구매했는데 고장이 나니 지역 A/S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아 부산에서 와야 한다고 한다. 일단 접수를 해놓았지만 현재 2년째 서비스 기사가 안 오고 있다. 유명 메이커를 사용하고 싶어도 A/S가 안 되니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 시골에 병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못 내려오는 경우도 많음.

“주변 지인들이 병원만 가까우면 내려와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귀촌인 B). 또한 90이 넘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한 번 아프셔서 남해 병원에 가니 진주로 가라고 했다. 진주로 갈 바엔 서울이나

대전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아플 때마다 지역에서 치료할 수 없어 대도시로 올라가야 하니 걱정이 된다.”

7.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 행정 지원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공장을 지으며 정책자금 2억 원을 신청했지만 신청 전 미리 계약을 해서 보증기관에서 승인이 안 났다. 사전에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일을 진행했지만 공무원도 순환직으로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집을 짓고 땅을 사려고 관공서에 물어보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업무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행정적 부분을 한 곳에 모아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줘야 한다. 창업의 경우도 필요한 절차와 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간장 포장의 경우 창원의 업체에서 포장지를 찍었는데 최소 수량이 1,000개 이상으로 약 3천만 원이 들었다. 창업할 때 이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 기업의 경우 50%를 지원해주는데, 사업체 등록 후 2년 이상에 매출을 얼마 이상 올려야 자격이 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경제적 기반 없이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 농촌의 6차 산업 등을 확산하려면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에게 귀농은 정말 어렵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과 경쟁이 안 된다. 자본·신기술·유통에 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귀농인은 여유 있는 경우가 없는

데 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정말 어렵다. 지자체에서 귀농 교육 등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농업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대부분 고령자인 원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된 교육 또한 필요하다.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서나 태우고 있다. 남해는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스티로폼이나 비닐 등을 태워서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8.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봉곡마을)

8.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 전체 가구 수는 39가구이며, 이중 귀농·귀촌인 가구는 12가구임. 작년 (2016년)과 비교하면, 봉곡마을은 산지가 많아 농지가 부족하여 귀농인 1명이 농지가 있는 인근 마을로 이주했고, 다른 한 가구는 순창으로 이주함. 작년에 마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친인척인 은퇴한 남자 한 명이 가족 없이 그 할머니 집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마을 주민들과 교류가 없음. 그 외 귀향인 한 명이 마을로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음.
- 봉곡마을로 귀농이나 귀촌하고 싶다는 문의는 계속 있는데 살 집이나 농지가 없기에 새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 없음. 귀농·귀촌인이 5가구 모여 사는 소규모 단지가 있는데, 생태적인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곳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은 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함.

8.2. 정착과정

- 귀촌인 A는 2008년 동향면 사무소 인근으로 이주했다가 2011년에 봉곡마을에 집을 지어 전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현재는 주로 텃밭일과 함께 글을 쓰며 살고 있다. 30대에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불교환경교육원에서 주최한 ‘생태학교’를 졸업하고, 환경활동을 하다가 진정한 대안적인 삶은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이라는 판단 아래, 2004년 양평으로 이주하였다. 2005년부터 벚꽃건축(스트로우베일 하우스)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활동하다가 (재)내셔널트러스트가 영월

동강 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스트로우베일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었다. 2008년 진안군 동향면 내로 전입하여 벚꽃건축 시공 및 교육 관련 일을 하다가 2010년 봉곡마을에 4가구가 부지를 마련하고 스트로우베일 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하였다. 정착과정에서 산지가 많은 진안군에서 집터를 찾는 게 힘들었다.”

- 귀농인 B는 2005년에 봉곡마을로 이주하였으며, 2011년에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고,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등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종교 활동을 하던 중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종교적 삶의 형태로 자연과 땅에 근거한 농촌마을로 들어가기로 아내와 결정하였다. 정착할 마을을 찾다가 현재 인근 마을에 귀농해서 살고 있는 지인에게 봉곡마을을 소개받고 전입하게 되었다. 정착과정에서 종교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아내와 논의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후 봉곡교회에서 학선리 마을박물관과 행복한 노인학교를 개설,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다.”

8.3. 경제활동

- 귀촌인 A의 연간 가구소득은 약 3천만 원 정도이며, 인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아내 분의 소득임.

“마을에서 농지 구하기가 어려워 농업소득은 거의 없고, 농번기에 일손을 돕고 일당을 받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지만,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자녀 2명이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여 현재 교육비 지출이 없어 부담이 덜어지긴 했지만, 둘 다 도시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여 월세 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다. 올해부터 농가주택 신축 시 빌린 4,500만 원에 대한 대출거치기간 5년이 끝나고, 2015년부터 분할상환이 시작되어 연간 400만 원(원금 균등상환 300만 원, 이자 100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발생한다.”

- 귀농인 B는 3천 평 정도의 농사를 지어 연간 2천~3천만 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에 방과 후 학교 탁구 강사로 올해 3월부터 월 8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이 있음.

“소비자 회원 20가구에 월 2~3만 원씩 받고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 작목으로 오미자, 야콘, 고구마 등을 출하하고 있는데 연간 2천~3천만 원 농업소득에서 비용 제외 시 1천5백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주요 작목은 오미자로 매년 1~1.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야콘은 올해 처음으로 재배했다. 서울에서 생활체육인으로 탁구를 했었는데, 진안군에서 탁구를 가장 잘 쳐서 방과후학교 선생님이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진안군 탁구협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적지 않은 농사 규모 때문에 행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외부 회의 등이 많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과 병행하기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새로 채용된 마을사무장이 있어 서류 작성 등은 안 하고 있다.”

-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 요건 및 한계 등을 언급했음.

“마을의 경제사업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적·물리적 여건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로컬푸드 등의 6차산업 화나 완주와 같은 지역의 성공은 전주와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튼튼한 재정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다품종 생산자 조직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진안은 어려운 점이 많다. 전국적으로 행정 주도의 로컬푸드 사업에 거품이 많다.”

8.4. 지역사회활동

- 귀촌인 A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지를 구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2016년부터는 주로 칼럼 등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음.

“자녀 2명이 인근의 대안학교인 푸른꿈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동안 학부모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2012년도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5년도에 진안군 언론협동조합에서 활동했으며, 올해부터는 전북교육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 귀농인 B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3단계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조성지원사업(5억 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봉곡마을 최초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1단계 사업인 그린빌리지사업(2014년)으로, 마을의 환경정비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및 분리수거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후 그린빌리지사업 우수마을 선정, 2, 3단계 사업인 참살기좋은사업(2015년), 으뜸마을사업(2016년)을 추진하였는데, 으뜸마을 사업 내용으로 마을에 귀촌한 만화가가 마을 안내 지도판을 만들고, 버스정류장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생생마을 기초단계로 면담 귀촌인이 마을역사자원을 조사하며, 휴먼케어사업으로 수영이나 요가를 진행(선생님이 본인 집에서 6개월 정도 묵으면서)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사업의 목표 및 향후 계획 등을 언급했음.

“올해 시작된 슬로푸드 조성지원사업에서 마을이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교육, 복지, 문화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식당도 건축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은 농번기 점심식사 및 농한기 노인식사

제공 등 주민복지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마을 역량이 보다 강화되면 슬로푸드 조성지원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유기농벨리 구축에 마을 이장이 쌀을 생산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수수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마을에 현재 마을해설사 2명, 체험지도사 1명이 수료 예정에 있다.”

- 마을의 주요 행사로 매년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으며, 지난 9월 8~9일 진안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음. 마을에서 처음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이전에는 물품을 구매해서 썼는데,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사용)함.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과 이를 위한 마을 홍보를 위해 마을을 포장해서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8.5. 삶의 질 실태

- 인근 보건지소가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보건 및 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보건지소 운영에 소극적인 근본적 이유는 일하고 있는 마을 및 지역에 대한 애정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익산-장수 고속도로의 빨대효과로 현재 보건지소뿐 아니라 진안군청의 공무원의 상당수가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관심과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교육과 관련하여 인근에 대안학교 등이 있고, 마을의 행복한 노인학교 외 다양한 평생학습 수업이 운영되고 있어 부족함은 없음.

- 마을환경은 그린빌리지 사업 이후 지금까지 분리수거 진행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음.

“진안군에서 분리수거 담당자에게 10만 원 미만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부녀회 회원이 돌아가며 담당하면서 마을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등 매우 큰 효과가 있다. 또한 분리수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있다. 어르신들은 읍이나 면에 나가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장 볼 때 중요하게 챙기는 물품이 아니라서 호응이 좋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마을환경이 나빠지게 되므로 쓰레기 봉투 제공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이다.”

8.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장기적 안목을 통한 정착과 지역사회에서 의식 있는 이들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귀농해서 농업, 특히 한 작물에 집중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워가면서 살 장기적 안목을 갖고 들어와야 한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역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의 분배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사회 주도권은 귀농·귀촌인이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연령별(청년, 은퇴자 등), 성격별(귀농, 귀촌, 귀향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교육, 의료 등)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과 그 수혜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을복지 간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복지수요자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지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복지공급자인 행정기관은 그 수요자를 찾는 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마을 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복지 간사가 이를 연계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될 수 있다.”

9.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현천리(현천마을)

9.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마을의 귀농·귀촌인은 작년과 비교해 2가구가 늘어 총 5가구임. 새로 들어온 한 가구는 아내 분만 상주해 살고 있고 남편 분은 도시에 직장이 있어 주말부부를 하고 있음. 아내 분은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음. 다른 가구는 도시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마을의 주택은 별장 형태로 주말에만 들어오고 있음.
- 마을에 ‘귀농인의 집’이 올해 생겼음. 현재 들어온 지 한 달 된 새터민 여자가 계심. 축사일을 돕고 있고 새터민이다 보니 좀 움츠려 있는 면이 있어 교류는 없다고 함.

9.2. 정착과정

- 귀농인 A는 2011년 마을에 오기 전,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대체 농지를 찾아 들어온 경우로 이농으로 볼 수 있음.

“연고가 있어서 귀농을 한 것은 아니고 지리산 청학동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부산의 농토가 4대강 구역으로 수용당한 후 대체 농지를 찾아 강진으로 이사했다. 어린 시절 소로 쟁기질하는 것부터 농사를 배웠고 군대 제대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귀농 교육 당시 귀농 2개월 차, 농사 경력 30년 차였다. 농사를 짓다 마을에 들어왔으므로 귀농보다는 이농으로 보는 게 맞다. 강진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강진의 정착지원 자금(당시 3,000만 원)이 없었어도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현재 법인(고마미

즈)에 속해 있다.

- 귀촌인 B는 제작년(2015년) 마을에 들어왔는데 귀촌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었음.

“본적은 강진군 다른 마을이지만, 가족들 모두 도시로 올라가고 연고 없이 마을에 들어왔다. 귀촌을 한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다. 귀촌 전 학교에서 예술 강사(방과 후 교사와 비슷함)를 할 때, 수업 편성을 위해 교무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선생님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도시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40대로 연륜이 있어 노련했고 시골학교는 교사들이 젊어서 열정이 있고 순수했다.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직업이 연극 강사(배우)로 어디에 살아도 강사 일을 할 수 있어 귀촌이 가능했다.”

9.3. 경제활동

- 귀농인 A는 현재 K영농조합법인에 속해있고 주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음.

“K법인은 생산·유통·대체생산까지 하고 있다. 법인에서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했고 현재 하고 있는 딸기는 거의 내수로 하고 있다. 강진군 전체에서 40여 농가가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강진 마에스터고 졸업생 6명 중 3명이 취업했고 나머지 3명은 ‘아시아 종묘’에 취직했다.”

- 귀촌인 B는 연극 강사일과 연극 기획도 하고 있음.

“현재 농사를 조금 짓고는 있으나 소득은 없고 연극 강사가 주업이며 연극 기획도 하고 있다. 노년층부터 학생들까지 대상이 다양하다. 작년엔

경기도까지 강사 일을 나갔지만 요즘은 전남지역에서만 하고 있으며 예술 강사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강진에서는 강진 아트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포에서는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한다.”

- 귀농·귀촌 정책 이전에 농업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음.

“도시에도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지만 농촌은 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양파 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오면 며칠 후 양파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FTA 등으로 이익이 나오는 전자 자동차 산업 등에서 그 이익을 농업에 환수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면, 판은 농업·농촌을 어렵게 설정해놓고 귀농을 권장하는 것은 서바이벌 판에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가를 낮추되 농가소득을 보존해 줘야 하는데, 제도적 여건도 국민 인식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고기류보다 신선농산물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가격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센터의 귀농·귀촌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준 후에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 자영업의 대안이 귀농·귀촌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 귀농·귀촌인의 작목 선택 및 시설 투자 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

“농업의 경우 시설 투자를 했다가 포기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포기해도 투자금의 절반은 건질 수 있지만 농사의 경우 품목 간의 유연성도 없어 귀농인이 하나의 작목을 포기하면 10%도 건지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투자금 때문에 밭이 묶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시설 투자 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자체에 문화 관련 지원을 요청 시 그 사람의 경력과 무엇을 할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

“귀농 문화단체와 연계해 극단을 만들어 공연을 하려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군에서 무조건 첫째는 100만 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입장은 규정상 무엇을 하든 첫째는 100만 원, 다음 연도는 50만 원 증액, 몇 년 후 성과가 좋으면 300만 원 지급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업은 지자체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따와서 강진아트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문화·관광 등 지역 소득사업 추진 시 행정에서의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강진군에서 문화 관광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적 인프라가 너무 약한 실정이다. 이왕 할 것이라면, 일본과 같이 콘텐츠화의 개념으로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문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보인다. 문화 콘텐츠로 재포장해서 상품화한다는 것이 막연한 일이다. 공무원이 교육 몇 번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잘못되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면 1차원적인 경우가 많았다. ‘청자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이지만 가서 보니 한참 유행이 지난 콘텐츠들이었다. 문화적 인프라가 들어와야 하는데 군에서 문화분야 전문가를 5년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뽑는다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진의 경우 내부 공무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워 보인다.”

9.4. 지역사회활동

-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을 면담하고, 귀농인 A의 집으로 보내 교육을 하고 있음. 귀농인 A는 주 작목 교육도 올해부터 하고 있

고 예비 귀농자를 대상으로 2시간씩 주 2회 실시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교육을 하며 느낀 점은 귀농인 단체·협의회를 각 지역별로 거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귀농인들이 고기 낚는 법을 배우려면 기술센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귀농인 단체·협의회를 각 지역별로 먼저 키워놓고 지역의 귀농학교를 연결해주면 지역거점별로 귀농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에 귀농 희망자(멘티)와 귀농 선배(멘토)를 맺고, 1년 정도 휴가 때나 주말에 멘토의 집에서 지내보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인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시골적인 정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귀농한 사람들의 모임 거점을 귀농학교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귀농자가 지원하는 지역의 거점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기술센터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관 조직이다 보니 한계가 많아 보인다.”

- 면담 귀촌인은 강진군에서 연극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극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안 오지만, 배우러 오는 사람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임. 젊은 층이 없어 극을 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 사람의 모집이 어렵고 오더라도 노년층이어서 연극보다 탈춤이 인기라고 함.

-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교육·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

“지역에 교육·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가 앞으로 귀농·귀촌지역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품목에 대한 정보는 많아져서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하다고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의 경우 원주민과 귀농인의 비율이 비슷해졌고 군수 또한 귀농인 대상 공약을 많이 펼치고

있다. 학생 수는 귀농인 자녀 비율이 원주민 자녀 비율보다 많아졌다. 농촌의 학교가 버티는 것은 귀농인 자녀들의 영향이다. 정부의 정책이 지역 인구 늘리기가 목적이라면 학교 교육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마을의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학교에 귀농인 자녀들이 더 많아져 텃세가 없어졌다. 5~6년 사이에 농촌 학교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9.5. 삶의 질 실태

- 농촌의 과소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로 학생 수도 귀농·귀촌인 자녀 비율이 높아졌음.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와 중학생 작은아이가 있다(귀농인 A). 강진의 경우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다. 큰아이는 성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이는 칠량초등학교를 거쳐 칠량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1년 귀농 초기에는 아이들의 적응이 힘들었다. 원주민의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자라왔는데 큰아이가 경상도 말씨를 쓰고 하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진의 경우 강진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큰아이의 경우 성전고등학교에 보낸 이유는 성전고에서 성적이 좋으면 수시 특별전형(지역균형 선발)으로 대학 입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서와 건강 측면에도 좋고 사실 초등교육은 도시와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 또한 시골에서 키우니 사교육비 지출 또한 없어 만족한다.”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 6학년, 4학년, 2학년이다(귀촌인 B). 재작년(2015년) 마을에 들어와 잘 적응했다.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약

50명가량이다. 귀농인 A가 귀농한 시점과는 다르게 현재는 귀농·귀촌인이 많아져 학생 수가 늘고 있다. 요즘은 귀농인의 자녀가 원주민 자녀보다 많아 텃세 등이 잘 없다. 약 5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강진에 살면서 크게 문화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음.

“목포가 가까워 영화를 보고 싶으면 목포로 가기도 하며, 강진 아트홀에서도 영화를 보여준다. 강진 아트홀에서 얼마 전 도심지에 살면서도 보기 어려웠던 국립국악단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으며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의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다. 강진 군수가 이러한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9.6. 기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농업분야에도 ICT융복합을 키워야 젊은 층이 들어올 것이다. 강진군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함께 2011년에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쪽의 농촌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 중 한 명은 소를 사육하는 것을 보고 현재 ‘강진 힘찬 한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저 또한 일본의 하우스를 보고 ICT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시설을 갖췄고, 현재는 휴대전화로 1,600평가량의 하우스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의 첨단화를 이뤄내야 젊은 층이 유입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방 농산물을 판매할 때 ‘고향세’가 붙는다. 수익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정책이며 사람들도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고향세’를 발의했으나 3달간 100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고향으로 환원하는 비용을 기업에 부과한다면 농업과 농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법인이나 대규모 농가에서 귀농인들을 농업 인력으로 키워내려면, 마이스터고나 도시의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한 예로 ‘고마미즈’에서 마이스터고 출신 신입직원들은 국가에서 월 60만 원씩을 받고 있다. 근본적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안 된 실정에서 법인이나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외국인이 아닌 귀농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부분에 젊은 친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강진군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내실이 없다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귀농자들이 필요하다. 이는 귀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군의 정책을 이러한 귀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얼마 전 강진군의 문화 축제를 담당한 새로 들어온 젊은 공무원이 ‘병영성 축제’를 기획했고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문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처럼 젊은 층의 다른 시각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10.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10.1. 마을 귀농·귀촌 현황

- 학교살리기로 들어온 가구를 포함한 귀농·귀촌인 15가구는 임대 3년이 만기되어 집을 구입하거나 년세(전세와 같은 개념)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음. 학교살리기 빈집 임대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 빈집을 고쳐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서 살았음. 초기에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상황이 변해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개인적으로 활용(임대, 게스트하우스, 자녀·지인 등이 사용)하고 있음. 현재 1가구만 남아 유지하고 있음. 거주지 문제로 주소지는 마을에 두고 거처만 인근으로 옮겨 마을에서 학교를 보내는 가구도 많음.

〈표 2-1〉 신례1리 귀농·귀촌인 현황

| 번호 | 연령대 | 직업(남편/아내) | 거주지 | 비고 |
|----|--------|---------------|-----------------------------|------------------------|
| 1 | 40대 후반 | 목수/피부관리 | 효돈이사-신례초재학 | 집건축 이사 |
| 2 | 40대 초반 | 목수/사서 | 신례리-3년 만기 | 자가전세 |
| 3 | 40대 초반 | 목수/농사 일당 | 신례리-3년 만기 | 자가년세 |
| 4 | 40대 초반 | 회사원/방과후 교사 | 신례리-3년 만기 | 마을공동주택 임대 |
| 5 | 40대 초반 | 카페 창업/방과 후 교사 | 신례리-4년 계약 유지 | |
| 6 | 50대 초반 | 관광지 근무 | 신례리 | |
| 7 | 40대 후반 | 회사원/어린이집 | 효돈이사-3년 만기 | 자가년세 |
| 8 | 40대 초반 | 목수/펜션근무 | 신례리-3년 만기 | 자가년세 |
| 9 | 50대 후반 | 자영업/수학과외 | 신례리 | 땅구입, 집건축 |
| 10 | 40대 후반 | 운동코치 | 토평-신례초 재학 | |
| 11 | 40대 후반 | 목수/농사 일당 | 신례리-3년 만기 | 자가년세 |
| 12 | 40대 후반 | 농사/식당 | 신례리-3년 만기 | 자가년세 |
| 13 | 40대 후반 | 귀농법인체운영/활동보조 | 신례리-5년 임대 | 농지구입, 집 임대 |
| 14 | 30대 중반 | 회사원/활동보조 | 하례리-3년 임대 | 주인의 집 매매로 강제이주, 신례초 재학 |
| 15 | 40대 초반 | 공방 인테리어 | 신례리-3년 만기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 | |

- 마을 주민의 구성은 전체 1,500명(500세대) 안팎이며, 외지인이 약 100명 정도가 됨. 젊은 층으로만 보면 대략 50:50의 비율임.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집이 부족해 인근 마을과 같이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해봤으나 잘 안됐음. 빈 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땅값이 올라 누가 희생하기가 어려움. 목장 조합에도 땅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땅값이 올라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웠음.
- 땅값이 오르긴 전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친척, 지인 등이 알음알음 살곤 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짐. 이러한 이유로 귀농인들이 땅값을 다 올려놨다며 시선이 곱지 않은 원주민도 있음.

10.2. 정착과정

- 귀촌인 A는 고양시에 살다가 2013년 학교살리기 주택 무상임대 사업으로 마을에 들어왔음.

“도시에서 살 때,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의 절반이 ‘뛰지 마라’였다. 각박한 도시 생활이 싫어, 시골로 돌아갈까 해서 2012년 고향인 고창군을 알아봤지만, 그 당시 논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있고 생필품이라도 사려면 1시간을 나가야 하는 현실이 이상과 맞지 않아 포기했다. 이후 제주 봄이 일어 한번 가볼까 해서 내려왔다가 1주일 만에 답사를 마치고 마을에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답사할 때, 지역신문을 통해 학교살리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처음엔 제주시의 물매초등학교에 신청해보려 했지만 정원이 다 차서 못했다. 또다시 신문을 통해 신례리 학교살리기 위원장님께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았다. 면접은 이장, 학교살리기 위원장, 개발위원장이 봤고, 경쟁률이 40:1 정도였다. 자

녀가 총 넷으로 초등학생이 2명 있어서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세 집이 리모델링 중이었으나 제주의 대부분 집이 15~20평으로 작아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엔 좁았다. 따라서 남편이 한 달 동안 혼자 머물며 25평 정도 되는 집을 찾아 들어게 되었다. 들어와서는 예촌 작은 도서관의 사서를 자처해 하고 있다.”

- 귀촌인 B는 제주생활 초기에는 제주시에서 머물렀지만, 자연과 더 가까운 곳을 찾아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음.

“처음 제주로 내려올 때 제주시에서 사는 지인이 있어서 년세(월세와 같은 형태)로 제주로 갔지만, 아내가 여긴 도시랑 똑같아 못 살겠다 해서 서귀포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발품을 팔며 서귀포마을을 다 돌았으며, 아내가 셋째아이를 가졌을 때 신례리가 따뜻하고 마음에 든다 해서 전 이장님댁을 찾아갔다. 전 이장님이 현 이장님 집 2층이 비었다고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현 이장님 집 2층에 기거했다. 그 후 리사무소 앞의 집을 매입해서 살다가 집이 너무 좁아 얼마 전 인근의 임시 거처로 옮겼다. 초기에는 장모님을 모시고 고깃집을 했으나 마을 장사다 보니 크게 안 돼 접었고, 현재는 내외 모두 학교에 체육 강사를 나가고 있다. 자녀는 셋으로 첫째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학교살리기 혜택은 전혀 모르고 들어왔다.”

- 마을에 내려온 사람들 대부분 도시환경을 벗어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려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함.

“임대주택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사실 가진 돈 없이 온 사람은 별로 없다. 학교살리기 면접 당시 범죄 조회 등은 했지만, 재산 자격을 따지지는 않았다. 2016년 이후로는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도 빈집이 없어서 자가를 구입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마을에 들어온 가구들 중 80% 정도가 아내 분들이 원해서 내려왔고, 대략 20% 정도가 남편 분의 의지로 내려온 경우이다.”

10.3. 경제활동

-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촌인으로 남편 분들의 경우 많이 하는 일은 목수임.

“귀농은 땅값이 너무 올라 실질적으로 어렵다. 땅값이 2013년에는 평당 20만 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100만 원대로 많이 올랐다. 마을 귀농인 중 2013년에 땅을 사서 귀농한 사람은 부동산 수익으로 큰돈을 벌었고 영농조합까지 만들었다. 목수일은 마을에 들어와서 배워서 하고 있다(귀촌인 A). 제주에 전반적으로 건설 호황이라 목공일이 많다. 남편은 처음 마을에 들어와 제주 지역 회사 중 큰 편에 속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토요일도 출근을 했고 월급이 너무 박했다. 한달에 25~26일을 일하는데 일도 고되고 복지도 좋지 않았다. 차라리 목조주택 일을 하는 게 개인시간도 있고 별이가 괜찮다. 다른 귀농·귀촌 가구 또한 목수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하던 일을 이쪽 지점으로 옮겨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목공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다.”

- 아내 분들의 경우 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음.

“하우스에 20~25일 알바를 나가면 130만~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애리 자연 생활공원’에 취직한 분도 있고, 생태연구소에서 실험보조를 하거나 숙박업소의 침구정리 등을 하는 가구도 있다. 활동보조(장애인분들 운전, 가정에서 보조 등)일은 평균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복지사나 요양사 등은 없다.”

- 여자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도 박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고르느라 잘 안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함.

“강의를 나가도 제주에서는 3만~6만 원 선으로 도시에 비해 박하며, 학원을 차리려고 해도 수요가 마을의 아이들로 한정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창업해도 수지 맞추기가 어렵다. 마을에 들어와 있는 귀촌인들은 대부분 돈벌이보다는 시골(제주)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다. 가구당 부부 합산 소득이 40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다.”

10.4. 지역사회활동

- 마을의 정기 총회를 1년에 1번 하고 있고 체육대회는 매년 하고 있음.

“정기총회에 귀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원주민은 귀촌인들이 안 나온다는 입장이고 귀촌인들은 안 부르니 안 간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와흘리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이 부촌을 형성했다. 원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서 서로 길도 따로 쓰고 있다고 한다. 중재의 자리에서 원주민은 안 불러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며, 원주민들은 꼭 불러야만 오느냐고 했다고 한다. 신례리 뿐만이 아닌 제주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체육대회는 읍체전과 마을 체육대회가 2년에 1번씩 있어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찬조금을 걷어 경품 등을 제공하며 운영비로 사용한다.”

- 신례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텃세가 덜한 편이며, 귀촌인들이 먼저 다가가 어울리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고 함.

“매년 이장님 댁에서 김장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러한 품앗이 형태가 아직 남아 있어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귀촌인 B). 또한 마을에 합동 세배가 남아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으며, 마을 이장님 또한 자기 집 대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귀농·귀촌인들에게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하며 정착을 돕고 있다.”

-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으며 귀촌인 A씨는 주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음.

“체육대회의 찬조금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주민들의 밴드에 마을의 의견을 전달하곤 하는데 찬조금에 대해 찬반이 생겼었다. 마을에서는 학교살리기 이름으로 작게 성의 표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귀촌인들이 금액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었다.”

“원주민들과 귀촌인 사이에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을 행사나 체육대회 등에 귀촌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서로 볼 시간이 없다. 원주민은 일하기 바쁘고 귀촌인은 자기 일이 바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서로 볼 시간이 없다. 서로 간에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학교살리기로 온 귀촌인은 폐교 위기에서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도움을 줬다는 인식을 갖는 사람이 있으며 원주민은 와서 혜택만 다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 또한 학교살리기로 들어온지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 마을에 원주민의 비율이 높아 귀촌인들이 움츠려 있는 경향이 있음.

“귀촌인이 마을 주민의 10%도 안 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마을 공동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 귀촌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원주민들 눈치가 보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마을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못해 마음이 좀 상했던 귀촌인도 있었다.”

- 면담 귀촌인 모두 돈 없이 귀농·귀촌을 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함.

“땅을 사서 들어온 경우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만, 학교살리기

로 들어온 경우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원주민들은 마을에 집을 사서 들어와야 정착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의 경우 1년을 살았어도 마을 주민으로 인정해 주지만 다른 가구의 경우, 5년을 살았지만 전세로 있어서 외지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귀촌인들은 땅값이 너무 올라 미리 사놓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10.5. 삶의 질 실태

○ 귀촌한 사람들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함.

“읍 지역으로 이사를 오니 아이들 교육·보육료가 다 면제되어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 직업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지만 남편 분들도 시간이 많아지고 지출과 소비가 줄어드니 생활이 가능하다. 마을 주민들도 먹을 것을 수시로 나눠주고 체육대회나 동문회 등에서 경품으로 쌀도 풍족하게 나눠줘 심지어 쌀값도 안 든다. 생활비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마을이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 할 것이 없다. 배달음식도 배달이 안 되다가 최근에 되기 시작했다. 근처에 백화점도 없고 하다 보니 옷도 안 사 입게 되어 소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 학교의 학생 수는 약 70명으로 올해 10명이 졸업해 빠져나갔지만 마을에 빈집이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학생들 기준으로는 외지인이 50%가 넘었음. 4학년 학생수가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학년별 학생수가 10명 안팎이라고 함.

제 3 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올해 3년차에 접어드는 마을 사례조사는 귀농·귀촌이 농촌 마을에 주는 의미,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임. 3년차 조사에서는 귀농·귀촌 사례 마을에 대한 기본실태, 정착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함.
- 2015년 선정된 10개 사례 마을의 마을 관계자(이장 등)에게 연락을 취해, 정착해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마을당 2~3명 추천받았음. 정착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2017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마을별 3차 방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귀농·귀촌 마을의 기본실태, 정착과정(귀농과정, 귀농 교육 여부), 경제활동(마을개발 사업, 6차 산업,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지역사회활동(사회적 자본, 귀농·귀촌인의 역할, 원주민과 귀농자의 갈등 사례, 귀농자 유입으로 인한 변화), 삶의 질 실태(복지, 교육(농촌학교), 문화·여가, 환경·안전) 등이었음.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은 전체 67가구 중 12가구가 귀농·귀촌인 이고 그 외에도 도시에 거주하며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음. 마을이 집성촌이었으나 대부분 빠져 나갔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구는 9가구임. 귀농인 부부 A는 2000년대 초반, 마을에 땅을 구입해서 도시에서 오가다 2011년 정착했음. 귀농 초기(1~2년간), 이장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함. 하지만 정착기를 지나 귀농인 부부가 마을 운영에 주도력을 발휘한 후 마을 리더들과 갈등이 시작됨. 마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수익 배분, 마을회관 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 마을 주민과 귀농인 간의 갈등이 있고 귀농인 부부 A는 마을 운영 시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마을이 특정 성씨 집성촌으로 친인척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마을 문제가 있어도 서로 덮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함. 또한 원주민과 귀농인 모두 혼자 지내는 고령자들이 많고, 그들은 시끄러운 것이 싫다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이러한 마을 갈등에 대해 지자체에 공식적 문제 제기 통로는 있지만, 주민들 자체 해결을 지켜보고 입장임.
- 평창군 대화면 개수2리 봉황마을은 전체 81가구 중 72가구가 귀농·귀촌 가구임. 귀촌인 A는 자연환경이 좋아 정착한 경우이고, 귀농인 B는 우연히 알게 된 전 이장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보고 정착한 사례임. 귀촌인 A는 연금과 펜션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고 귀농인 B는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을 규약이 중요했음. 전 이장의 경우 도시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 및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마을에 정립화된 규약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함. 따라서 취임시절 6개월간 마을 조례를 만들었고, 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해 반상회 때마다 고쳐 나간 끝에 주민들 80% 이상의 서명을 받았음. 이후 마을에 원칙이 생겼고 마을 일에 불만이 있는 원주민들도 이미 서명을 했으니 큰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함. 마을의 실정과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농·귀촌 교육 또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 측면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 지원이 필요하며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대상 문화

적 행사나 취미활동이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했음.

-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2리의 전체 가구 수는 약 30여 가구이며, 귀농·귀촌 가구는 14가구임. 사지원2리의 대부분 귀농인들은 대부분 연금이나 자기 자산이 있는 여유 있는 귀농인들임. 젊은 층이 아닌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오는 귀농인들은 사실 귀촌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하며, 자신들은 사실 귀촌형 귀농인이라고 함. 귀농인 A씨와 B씨는 땅이 마음에 들어 정착한 사례이고, C씨는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쾌적성이었음. 농촌에 기반이 없는 도시민들이 귀농 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귀농·귀촌인들에게 호의적인 마을 분위기와 이장의 역할이 중요했음. 귀농·귀촌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시골에 정착하려면 작게나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안 짓는다면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적응이 가능하다고 함.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사지원2리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지와 문화 등은 크게 개의치 않고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손쉬운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했음.
-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산너울마을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계획된 마을로 구성원의 큰 변화는 없음. 등고리는 집성촌이었지만, 산너울마을이 들어선 이후 집성촌의 의미가 희미해졌음. 면담 귀촌인 모두 산너울마을에 살고 있음. 귀촌인 A의 주요 소득원은 연금으로 농업은 하지 않고 있음. 귀촌인 B는 2011년부터 7년간 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월 13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아 생활하고 있음. 귀촌인 A는 2015년부터 2년간 전임 마을 대표를 맡아 마을 일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귀촌인 B는 전전임 마을 대표로 활동하다가 현재 산너울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임. 마을사업 추진 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지향점 설정이 중요했음. 삶의 질 관련해서는 주거 및 자연, 교육환경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의료 및 교통 서비스는 지역 실

정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함.

-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마을의 전체 가구수는 80가구이며, 귀농·귀촌 가구는 28가구로 작년과 비교해 3가구가 늘었음. 귀농인 A는 귀향인으로 퇴직 후 연금이 나와 먹고사는 문제는 없으니, 농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며 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음. 귀농인 B씨는 젊은 귀농인으로 도시생활을 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게 싫어서 귀농을 결정했음. A씨는 주로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B는 협동농장 봉화사람들에 소속되어 있는 친환경 농가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음. 원주민과 협동농장과의 갈등은 아직 없음. 부딪칠 일이 없어 원주민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방관하는 입장이라고 함. 마을의 권역사업을 할 때,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마을의 귀농·귀촌인 비율이 1/3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세력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함.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주도한 다양한 마을 단위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삶의 질 관련해서는 명호면의 경우 자체적인 모임은 없고 귀농·귀촌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있음.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귀농·귀촌인 자녀가 원주민 자녀를 넘어섰음.
-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의 전체 가구 수는 62가구이며, 귀농·귀촌 가구는 23가구임. 귀농인 부부(남편 A, 아내 B)는 2014년에 마을에 들어왔음. 정착과정에서는 부부가 이상향이 비슷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함. 귀농인 C씨는 미혼으로 작년(2016년)에 마을로 들어왔음. 마을에 협업농장의 형태는 아직 없고 작목반은 면단위로 있음. 포도는 대부분 개인이 하고 있고, 출하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귀농인 부부(A, B)는 농사를 짓고 있고 귀농인 C는 작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마을에 들어와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함. 경제활동과 관련해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 진입의 어려움과 도시적 사고방식이 농촌에 들어오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또한 귀농인들의 정착에 마을 리더(이장)의 역할이 중요했음. 귀농 후 원주민들의 텃세나 불화에

없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함. 면담한 귀농인들 모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마을에 들어와서 시골에서의 불편은 예상하고 왔으며, 대신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방을 열었는데, 모동면 작은도서관도 그 일환임. 삶의 질 관련해서는 농촌에 내려오니 아이들과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지만, 어린이집과 산부인과의 경우 취약한 부분이 있음.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대한 인식이 없어 마을 이장이 관련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함.

- 남해군 남면 홍현1리 홍현마을의 전체 가구 수는 행정적으로는 109가구지만, 펜션 건물에서 세대를 나눠 놓는 등의 이유로 실 가구 수는 95가구임. 귀농·귀촌인 가구는 22가구임. 귀촌인 A와 귀촌인 부부(남편 B, 아내 C) 모두 마을의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귀촌했음. A는 귀촌 후 지금까지 줄곧 펜션을 하고 있고 귀촌인 부부는 어간장 사업을 하고 있음. 취미로 하던 어간장을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전통 방식의 간장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함. 또한 남해와 같이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연금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함.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려면 스스로 원주민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필요함. 집성촌의 경우 원주민들의 결집이 강해 귀농·귀촌인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귀농교육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삶의 질 관련해 남해와 같은 관광지의 경우 거점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 수단이 필요하며, 취미 여가생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 또한 마을에 귀촌해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물건이 고장 났을 때 A/S 부분이라고 함.

-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봉곡마을은 전체 가구 수는 39가구이며, 이 중 귀농·귀촌인 가구는 12가구임. 귀촌인 A는 2008년 동향면 사무소 인근으로 이주했다가 2011년에 봉곡마을에 집을 지어 전입했음. 귀농인 B는 2005년에 봉곡마을로 이주하였으며, 2011년에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음. A의 연간 가구

소득은 약 3천만 원 정도이며, 이는 인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아내 분의 소득임. B는 3천 평 정도의 농사를 지어 연간 2천~3천만 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에 방과 후 학교 탁구 강사로 올해 3월부터 월 8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이 있음. A는 농지를 구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다가 2016년부터는 주로 칼럼 등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고 B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3단계 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조성지원사업(5억 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인근 보건지소가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보건 및 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교육과 관련하여 인근에 대안학교 등이 있고, 다양한 평생학습 수업이 운영되고 있어 부족함은 없음. 마을환경은 그린빌리지 사업 이후 지금까지 분리수거 진행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음.

-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현천마을의 귀농·귀촌인은 작년과 비교해 두 가구가 늘어 총 다섯 가구임. 또한 귀농인의 집이 올해 생겼음. 귀농인 A는 2011년 마을에 오기 전,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대체 농지를 찾아 들어온 경우로 이농으로 볼 수 있음. 귀촌인 B는 재작년(2015년) 마을에 들어왔는데 귀촌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었음. A는 현재 K영농조합법인에 속해있고 주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음. B는 연극 강사일과 연극 기획도 하고 있음. 귀농·귀촌 정책 이전에 농업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귀농인의 작목 선택 및 시설 투자 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음. 또한 지자체에서 문화 관련 지원 시 그 사람의 경력과 무엇을 할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관광 등 지역 소득사업 추진 시 행정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교육·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 삶의 질과 관련해 농촌의 과소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로 학생 수에 귀농·귀촌인 자녀 비율이 높아졌고 강진에 살면서 크게 문화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음.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의 학교살리기로 들어온 가구는 임대 3년

이 만기되어 집을 구입하거나 년세(전세와 같은 개념)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1가구만 남아 유지하고 있음. 초기에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개인적으로 활용(임대, 게스트 하우스, 자녀·지인 등이 사용)하고 있음. 마을 주민의 구성은 전체 1,500명(500세대) 정도이고 외지인이 약 100명이지만, 젊은 층으로만 보면 대략 50:50의 비율임. 귀촌인 A는 2013년 ‘학교살리기 주택 무상임대 사업’으로 마을에 들어왔음. 귀촌인 B는 귀촌 초기, 제주시에서 살았지만 너무 도시화된 환경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아 마을에 들어왔음. 마을에 내려온 사람들 대부분 도시환경을 벗어나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려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함. 대부분이 귀촌으로 남편 분들의 경우 주로 목수일을 많이 하고, 아내 분들의 경우 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음. 신례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텃세가 덜한 편이며, 귀촌인들이 먼저 다가가 어울리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고 함.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주민들과 귀촌인 사이에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인식 차이도 존재함. 마을에 원주민의 비율이 높아 귀촌인들이 움츠려 있는 경향이 있음. 귀촌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함.

2. 시사점

- 귀농·귀촌의 이유를 유형화해보면 전원생활, 영농활동, 생태적 가치 추구 등이 있었음. 전원생활은 퇴직 후 여생을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보내기 위함이었고 영농활동은 농업에 뜻이 있어 종사하는 경우였음. 생태적 가치 추구의 경우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농촌에서의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려는 경우였음.
-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양상을 보면 농업에 전념하는 경우, 농업 이외 다른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소득 등의 소득원이 있어 여유 있는 여생을 즐기는 경우 등이 있었음. 여유가 있는 귀촌인들이 최소한의 농업인 요건을 갖춰 각종 혜택을 보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음.
-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타남. 원주민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학교의 경우 귀농·귀촌인 자녀 비율이 원주민 자녀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겨남.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살아나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 자녀들의 텃세에 귀농·귀촌인 자녀들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라짐.
- 귀농·귀촌인의 정착에는 마을에 흡수되려는 귀농·귀촌인의 노력과 함께 마을의 귀농·귀촌인 수용 분위기와 준비가 중요했음. 일부 마을에서는 원주민과 귀농인의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경우, 서로 간에 기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집성촌의 경우 원주민들 눈치에 귀농인들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음. 하지만 원주민의 동의로 만들어진 마을 규약이 잘 짜여져 있어 귀농인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나 마을사업, 마을행사 시에 귀농·귀촌인과 주민 간의 잡음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 귀농·귀촌인뿐 아니라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 대책이 절실함. 영유아 보육시설,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부족 등과 더불어 농촌지역 특성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였음.

